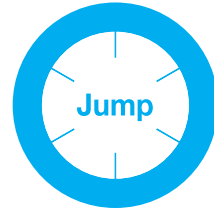


Longman

**FLY HIGH**  
GRAMMAR



# Chapter 01



## 수동태

### Unit 1 수동태의 다양한 형태

p.13

#### Check Up

- (1) Were/analyzed (2) Let/be taken (3) was not believed/ anybody (4) Can/be described
  - (1) What hit (2) must spend (3) Don't dry (4) No one will forget
  - (1) Let (2) anybody (3) placed (4) caused (5) be operated
- (1) 연구원들은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 강물의 샘플을 분석했니?  
▶ 주어가 복수이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be동사 were을 사용하여 수동태를 만든다.
  - (2)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해라.  
▶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O be p.p. ~형을 쓴다.
  - (3) 아무도 Tony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믿지 않았다.  
▶ 부정 주어를 가진 능동태는 수동태로 만들 때 서술부를 부정하고 by any-를 쓴다.
  - (4) 네 고향을 자세히 설명해 줘라?  
▶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에서는 조동사를 그대로 쓰고 be p.p.를 쓴다.
- (1) 그 기자는 팔에 무엇을 맞았니?  
▶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칠 때 be동사의 시제를 보고 시제를 정하고 be동사는 빼다.
  - (2) 우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한다.  
▶ 수동태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by 이하가 없으면 일반인용 주어로 쓰거나 문맥상 유추한다. (our→we)
  - (3) 젖은 스웨터를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말리지 말아라.  
▶ Let O be p.p. ~의 문장은 명령문의 수동태이므로 p.p.로 쓰인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을 쓴다.
  - (4) 아무도 유태인 대학살을 잊지 못할 것이다.  
▶ Any ~를 주어로 쓰고 서술부에 부정(not)을 쓴 문장을 틀린 문장이므로 주어를 부정어인 No one으로 바꿔 쓴다.
- (1) 새로 온 배관공에게 그걸 고치게 해라.  
▶ 뒤에 be p.p.라는 수동태가 있으므로 명령문의 수동태를 만드는 Let을 쓴다.
  - (2) Jason이 그 은행을 털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 앞의 서술부가 부정이므로 by 다음에는 anybody를 쓴다.
  - (3) 너의 작문 수업에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니?  
▶ 앞에 be동사가 있으므로 p.p.형을 써서 수동태를 나타낸다.
  - (4) 그의 병이 심한 흡연으로 인해 생겼니?  
▶ 주어인 disease는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의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나타내는 p.p.인 caused를 쓴다.

- (5) 그 장비는 숙련된 기사들만 작동해야 한다.  
▶ 장비는 기사들에 의해 작동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쓰고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을 쓴다.

### Unit 2 수동태의 시제

p.15

#### Check Up

- (1) are being poisoned (2) has been cleaned (3) was being pulled (4) had been built
  - (1) are being washed (2) couldn't be fixed (3) will be sent (4) must be thoroughly investigated
  - ⑤ 4 ③
- (1) 일부 범고래들이 그들이 잡아먹는 물고기에 의해 중독되고 있다.  
▶ 진행 수동태의 형태는 be being p.p.이다.
  - (2) 교실은 모든 학생들에 의해 청소되었다.  
▶ 현재완료 수동태의 형태는 have/has been p.p.이다.
  - (3) 그 수레는 두 마리의 말에 의해 끌려 가고 있었다.  
▶ 과거진행이고 주어가 단수이므로 was being p.p.를 쓴다.
  - (4) 그 성당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졌다.  
▶ 과거완료 수동태는 had been p.p.이다.
- (1) 지금 네 옷을 세탁 중이다.  
▶ 옷은 세탁되는 대상이므로 진행 수동태를 쓴다.
  - (2) 내 오래된 컴퓨터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칠 수 없었다.  
▶ 부품이 없다고 했으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옳다.
  - (3) 데이터는 위성에 의해 본부에 보내질 것이다.  
▶ 데이터는 보내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 (4) 그 살인 사건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 사건은 조사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 ①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격려받을 수 있다.  
② 작년에 Mr. Anderson이 역사를 가르쳤다.  
③ 오븐에서 치킨이 요리되는 중이다.  
④ 그 편지는 검은 잉크로 분명하게 쓰여졌다.  
⑤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 야망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 ⑤ 야망(ambition)은 이루어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will achieve→will be achieved
  - 그 장치에 새로운 특징이 추가되었다.  
• 그 연구 결과는 더 일찍 발표되었어야 했다.  
▶ 특징은 추가되는 것이고 결과도 발표되는 대상이므로 둘 다 수동태를 써야 하며,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는 과거의 후회를 나타낸다.

Check Up

- 1 ② 2 (1) with (2) to (3) to (4) on  
 3 (1) was paid little attention to (2) were made fun of  
 (3) been given up  
 4 ② 5 ③

- 1 • 그녀는 대단한 연기력으로 알려져 있었다.  
 • 그는 곧바로 자신의 유치한 반응에 부끄러웠다.  
 ▶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문장이다. be known for / be ashamed of를 쓴다.
- 2 (1) 달은 왜 분화구로 덮여 있니?  
 ▶ '~로 덮여 있다'의 표현은 'be covered with'를 쓴다.  
 (2) 회사의 대표로서 그는 그 업계 전반에 헌신했다.  
 ▶ '~에 헌신하다'의 표현은 'be devoted to'를 쓴다.  
 (3)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 '~에 노출되다'의 표현은 'be exposed to'를 쓴다.  
 (4) 그 연구는 약 3만 명과의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 '~에 근거하다'의 표현은 'be based on'을 쓴다.
- 3 (1)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구동사(pay little attention to)가 하나의 단위로 쓰였으므로 수동태로 고칠 때도 하나의 타동사처럼 함께 쓴다.  
 (2) 사람들은 과거에 여러 명의 미국 대통령들을 조롱했다.  
 ▶ 'make fun of' 또한 '~을 조롱하다'라는 타동사구로 쓰였으므로 함께 쓴다.  
 (3) Nancy는 삶에서 희망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었다.  
 ▶ 'give up' 또한 '~을 포기하다'라는 타동사구이므로 함께 쓴다.
- 4 ① 여자들은 미국에서 1920년까지 투표를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② Sam은 2009년 이후로 지방 정부 당국에 의해 보살핌을 받아 왔다.  
 ③ Jack은 작품을 많이 쓰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④ 꽃 한 다발이 Jane의 팔에 들려져 있었다.  
 ⑤ 그 개는 연속으로 두 차에 치였다.  
 ▶ ① 수동태에서는 동사의 p.p.로 let을 쓸 수 없다. ③ 어떤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할 경우 'be known as'를 쓴다. ④ have는 '가지고 있다'의 의미인 경우 수동태를 쓰지 못한다. ⑤ 구동사 'run over'는 하나의 단위로 붙여서 쓴다.
- 5 그의 상사는 아무 이유 없이 Kevin을 탓했다.  
 ▶ 'find fault with'라는 구동사는 하나의 단위로 붙여 쓰고, 시제가 과거형이고 주어는 단수이므로 was로 나타낸다.

Practice Test

- 1 (1) anybody (2) allowed (3) be placed

- 2 ① 3 ② 4 ② 5 ⑤ 6 ④ 7 ② 8 ①  
 9 (1) ② (2) ② (3) ③ 10 ⑤ 11 ③

- 1 (1) Jessica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 이미 서술부에서 부정어가 쓰였으므로 by 다음에는 anybody를 쓴다.  
 (2) Jessie는 처음에 그 동호회에 가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 수동태에서는 '허락되다'의 의미로 let 대신 allow를 쓴다.  
 (3) 식탁들을 나란히 배치해라  
 ▶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O be p.p.~이다
- 2 공기는 주로 산소와 질소로 구성된다.  
 ▶ '~로 구성되다'의 표현은 'be composed of'이다.
- 3 내 여동생은 자신의 에세이에 빨간색 수정이 너무 많았기에 실망했다.  
 ▶ '~에 실망하다'의 표현은 'be disappointed at'이다.
- 4 네게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무시를 당할 것이다.  
 ▶ 구동사 'look down on'은 하나의 타동사처럼 함께 쓰이며, 조동사 다음이므로 동사 원형인 be로 시작하는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 5 ① 그 티켓은 선생님들 중 한 분이 가지고 있다.  
 ② Tom은 그의 삼촌을 닮았다.  
 ③ 이 노트북 컴퓨터는 내 형의 것이다.  
 ④ Helen은 엄마에게 새 디지털 카메라를 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⑤ Ken은 감옥에서 5년간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 have, resemble, belong to, let 등의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
- 6 누가 그 개혁안을 지지했니?  
 ▶ 능동태의 주어가 의문사 who인 경우 수동태는 'by whom'으로 시작한다.
- 7 ① 즉시 그 의사를 부르러 보내야 한다.  
 ② 에어컨을 꺼라.  
 ③ 아무도 Andy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그 산봉우리는 일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⑤ Pam은 그녀의 첫사랑과 결혼했다.  
 ▶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O be p.p. ~'이다.
- 8 누가 스케줄을 정할 거니?  
 ▶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에서는 조동사를 그대로 써 주고 be p.p.를 쓴다.
- 9 (1) 네가 어제 그 리포트를 제출했니?  
 ▶ 수동태 문장이므로 p.p.를 쓴다. (→ handed in)  
 (2) 너의 인생을 피상적인 일에 낭비하지 마라.  
 ▶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는 'Don't let O be p.p. ~'이다. (→ be wasted)  
 (3)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 'look up to'는 하나의 구동사로 쓰이므로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by가 필요하다. (→ by children)
- 10 현재 우리 제품은 엄격한 제품 관리 하에 제조되고 있다.  
 ▶ currently는 현재시제와 쓰이고 제품은 제조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11 나는 Cindy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분명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다.

▶ 진실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들은 것은 그 전의 일이므로 'must have p.p.'를 쓰고 tell은 타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쓴다.

## Grammar in Reading

p.20

1 ④ 2 ① 3 ② 4 ③

5 let your children be affected 6 ①

7 (1) forgot to bring / might have been stolen (2) is only allowed to be moved by / can be trusted

1 **해석** |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간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를 산다. 그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마스크와 모자를 쓴다. 효과가 없다. 경찰이 그 남자를 보게 되고 그를 감옥에 가둔다. 그는 지난 주에 경찰에게서 달아난 도둑이다.

▶ 내용상 그는 아무에게도 인식되지 않도록 변장을 한 것이므로 부정의 수동태를 쓴다.

2 **해석** | 나의 가족은 시골에 산다. 우리는 아주 큰 정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엄마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정원에는 장미, 해바라기 그리고 많은 여러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우리 엄마는 모든 식물들을 돌본다.

▶ 'take care of'는 구동사이므로 하나의 타동사처럼 함께 쓴다.

3 **해석** |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해변에 간다.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해변에서 선댄을 한다. 그들은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위험하다.

▶ expose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쓸 때 by 대신 to 전치사와 쓰인다.

4 **해석** | 오래 전에 사람들은 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러 금속들을 결합해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늘날, 아무도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 Any로 시작하는 주어와 오고 서술부에 부정이 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5 **해석** | 당신의 아이들이 TV의 영향을 받도록 두지 말아라. 너무 많이 TV를 보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시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TV 앞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부정 명령문의 수동태이므로 'let O be p.p.'를 쓴다.

6 **해석** | 우리 생활이 컴퓨터에 의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정말 놀랍다. 컴퓨터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보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돕는다. 심지어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 진행형 수동태는 'be being p.p.'를 쓴다.

7 **해석** | (1) Bobby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갔다. 그는 친구들과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 자전거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분명 공원 근처에 그것을 놔두었다고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전거가 도난당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 forget은 앞으로 할 일을 잊어버린 경우 to부정사를 쓴다. 또한 이미 도난당했다고 짐작하는 것이므로 'might have p.p.'를 쓴다.

**해석** | (2) 그 박물관은 박물관의 그림 중 하나를 옮기려고 한다. 그 그림은 아주 오래된 고가의 그림이다. 그 그림은 관리자에 의해서만 옮겨질 수 있다. 관리자는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는 그 박물관에서 10년 동안 일해 왔다.

▶ let은 수동태를 쓰지 못하는 동사이므로 allow로 고쳐 쓰고 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신임을 받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 Grammar in Writing

p.22

1 (1) will be designated (2) was appointed (3) are being built (4) was arrested (5) has not been used

2 (1) Where can the latest software be downloaded? (2) Let the book be judged by what it has inside. (3) Christmas trees are being decorated for purchase in the store. (4) Don't let the button be touched while I'm gone. (5) The project should have been done before the presentation.

3 (1) We were allowed to join the team in the middle of the season by the coach. (2) All of us were surprised at Al's resignation. (3) The oil spill must be dealt with immediately by the government. (4) Jessica wasn't believed to win the tournament by anybody.

4 (1) Was the proposal accepted by (2) These side effects were not taken seriously by (3) is caused b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4) Some data may have been damaged by (5) have been grown for thousands of years

5 (1) The test results will satisfy your teacher. (2) Can chemical reactions divide atoms into smaller parts? (3) The investigators have looked into every small detail. (4) Don't ignore the needs of the disabled. (5) One of the board members came up with the idea.

6 (1) Nobody thought that Julie was unhappy./It was not thought by anybody that Julie was unhappy. 또는 Julie was not thought to be unhappy by anybody. (2) People have known him as a prominent scientist./He has been known as a prominent scientist. (3) What measures should the government take?/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government?

1 (1) 조선왕조의 더 많은 왕족 무덤이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이다.  
▶ 무덤이 유산으로 지정되므로 수동태를 쓰고 soon이라는 부사를 보고 미래시제를 쓴다.

(2) 우리 삼촌은 작년에 연구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 삼촌은 임명된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쓰고 작년이므로 과거시제를 쓴다.

(3) 지금 새 사무실 건물들이 강변에 밤낮으로 지어지고 있다.

- ▶ 'now'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은 지어 지는 대상이므로 현재 진행 수동태를 쓴다.
- (4) 그 남자는 경찰관이 그의 여행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하면서 체포되었다.  
▶ 그는 체포 대상이고 뒤의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과거 수동태를 쓴다.
- (5) 그 오래된 집은 Pitt부부가 이사 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 집은 사람에게 의해 사용되는 것이며, since를 써서 '이후로 줄 끝'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를 쓴다.
- 2** (1) ▶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의문문에서는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쓰인다.  
(2) ▶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O be p.p. ~'이다.  
(3) ▶ 현재진행 수동태는 'is being p.p. ~'이다.  
(4) ▶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는 두 가지이지만 don't가 나와 있으므로 'Don't let O be p.p. ~'의 형태로 쓴다.  
(5) ▶ '~했어야 했다'는 'should have p.p.'를 쓰고, '완료되다'는 수동의 의미이다.
- 3** (1) 그 코치는 우리가 시즌 중반에 팀에 합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let은 수동태로 쓰이지 않으므로 'be allowed to'를 쓴다.  
(2) AI의 퇴사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 surprise는 수동태로 쓰일 때 by가 아닌 at을 쓴다.  
(3) 정부는 기름 유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구동사는 하나의 단어처럼 항상 함께 쓴다.  
(4) 아무도 Jessica가 경기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 Nobody가 주어로 쓰인 복문의 수동태는 서술부를 부정으로 고치고 뒤에 행위자의 주체는 by anybody로 고쳐서 쓴다.
- 4** (1) ▶ 제안은 받아들여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2) ▶ 부작용은 연구원들이 받아들이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3) ▶ '~이 원인이 되다'는 'be caused by'이다.  
(4) ▶ 데이터는 손상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쓰고, 지난주의 일에 대한 추측이므로 'may have p.p.'를 쓴다.  
(5) ▶ '수천 년 간'이라는 기간이 나왔으므로 현재완료 수동태를 쓴다.
- 5** (1) 너의 선생님은 시험 결과에 만족해 할 것이다.  
▶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경우 목적어가 주어라 되어 조동사는 그대로 쓴다.  
(2) 원자는 화학 반응에 의해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니?  
▶ 의문문에서 조동사가 쓰인 경우는 능동태로 바뀌고 같은 조동사로 시작한다.  
(3) 조사관들이 모든 작은 세부사항들을 조사했다.  
▶ 'look into'는 구동사로 하나의 타동사처럼 함께 쓰인다.  
(4)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 부정명령문의 수동태이므로 부정명령문을 쓴다.  
(5) 그 아이디어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생각해 냈다.  
▶ 'come up with'는 구동사로 하나의 타동사처럼 함께 쓰인다.

- 6** (1) ▶ Nobody로 시작하는 능동태 복문은 수동태로 바꿔 쓸 때 서술부를 부정으로 고치고 행위자는 by anybody로 바꿔 쓴다.  
(2) ▶ 어떤 신분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be known as'를 쓴다.  
(3) ▶ 목적어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꾸는 경우, 의문사가 있는 목적어가 주어라 된다.

## Actual Test

p.24

**1** ① 2 ③ 3 ② 4 ⑤

**5** My computer is being used by Nancy. **6** ④

**7** should have been sent earlier

**8** have been attended to by **9** ④

**10** The police have just arrested Steve. **11** ③ **12** ①

**13** The scribe, the cutter, and the embalmer were involved in this procedure.

**14** ④ **15** ⑤

- 1** • 정치가로서 Ken은 국가적 통합을 진흥시키는 데 헌신했다.  
• 아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긍정적 활동에 노출되어야 한다.  
▶ dedicate와 expose 두 동사 모두 수동태로 고칠 때 by 대신 to를 쓴다.
- 2** ▶ 의문사가 있으므로 의문사로 시작하고, 제시되었다고 했으므로 수동태의 과거형을 쓴다.
- 3** A: Terry의 블로그는 어떻게 된 거야? 폐쇄된 것 같아.  
B: 지금 조사 중이야. 어떤 가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루머를 게시했거든.  
▶ it은 blog를 의미하며 블로그는 조사를 받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 4** ① 그 프로젝트는 지체 없이 완료되었니?  
② 기계들을 사용 전에 검사해 봐.  
③ 아무도 Henry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당신의 예약은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⑤ 다음 회의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 ①, ④ 수동태의 기본은 'be p.p.'이며 ②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O be p.p.'이다. ③ 또한 서술부에 부정이 있으면 행위자를 나타낼 때는 'by anyone'으로 써야 한다.
- 5** Nancy가 내 컴퓨터를 쓰고 있다.  
▶ 진행형의 수동태는 'be being p.p.'이다.
- 6** 어떤 나라가 다음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니?  
▶ 주어였던 what country가 행위자가 되므로 by what country로 시작하고 조동사 will은 그대로 쓴다.
- 7** A: 다들 어디 있어? 나는 회의가 3시인 줄 알았는데.  
B: 방금 이메일을 받았는데 회의가 기술적인 이유로 연기되었다고 나와 있어.  
A: 아, 이메일을 깜빡 했네. 그런 이메일은 좀 더 일찍 보냈어야지.  
▶ '~했어야 했다'라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은

'should have p.p.'이고 이메일은 보내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 8 그 학생자들은 의료직원들에 의해 돌보아졌다.  
▶ attend to는 '~을 돌보다'라는 의미의 구동사로 함께 쓴다.
- 9 ① Jenny는 학과장 사무실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  
② Smith부인은 그 진주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  
③ Mike는 그의 할머니를 닮았다.  
④ Fred는 경기에 참가하도록 허락받았다.  
⑤ Jim은 그의 연기에 만족스러워했다.  
▶ ①, ②, ③ let, have, resemble 등의 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고, ④ be pleased는 with와 같이 쓰인다.
- 10 Steve는 방금 경찰에 체포되었다.  
▶ 현재완료이므로 have p.p.를 써서 능동으로 고친다.

### [11-13]

살아나는 미래의 이미지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고대 이집트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은 부자들만 권력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 절차에는 필경사와 자르는 이와 방부 처리사가 포함되었다. 자르는 이가 시신을 가르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필경사의 일이었다. 방부 처리사는 내부의 장기를 제거하는 일을 맡았다. 간, 폐, 위와 창자들은 꺼내어 미라화된 시신과 함께 묻히도록 단지에 넣었다. 그러나 심장은 시신에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은 심장이 지능과 감정의 중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 11 ▶ 내부 장기들은 제거되는 대상이며, 또한 and 뒤에 placed도 p.p.로 쓰인 것을 보고 수동태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ould remove → would be removed)
- 12 ▶ 과거에만 이렇게 믿어졌으므로 수동태의 과거형을 쓴다.
- 13 ▶ involve 라는 동사는 수동태에서 in과 함께 쓰인다.
- 14 ① 그 계획은 변경되었나?  
②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슨 조치가 행해지고 있나?  
③ 모든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  
④ 등록 인원이 적으면 수업은 취소될 것이다.  
⑤ 그는 어제 누구에 의해 구조되었나?  
▶ ④ 수업은 취소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 15 지난주에 우리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  
▶ 집이 강도에 의해 침입을 당했으므로 수동태를 쓰고 break into는 구동사로 함께 쓴다.

## Chapter 02



## 부정사, 동명사, 분사

### Unit 1 부정사

p.29

#### Check Up

- 1 (1) 부사적 용법, 결과 (2) 명사적 용법, 목적어

(3) 형용사적 용법, 명사 수식 (4) 부사적 용법, 형용사 수식

- 2 (1) to cook → how to cook (2) give → to give (3) turn → turn to (4) To begin → To begin with
- 3 (1) to be (2) to return (3) to travel (4) to lose (5) to talk
- 4 (1) 가능 (2) 의도 (3) 의무 (4) 운명 (5) 예정

- 1 (1) 그는 자라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작곡가 중 하나가 되었다.  
▶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결과로 쓰였다.
- (2) 여러 용감한 여성들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 refus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 (3) Susan은 방문하는 동안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 '살 집을 구한다'라는 말에서 부정사가 앞의 pla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임을 알 수 있다.
- (4) 일부 언어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것 같다.  
▶ to master가 수식하는 것이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이므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 2 (1) 나는 그녀에게 몇 가지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how라는 의문사와 함께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를 쓴다.
- (2) 나는 여기서 연설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이다.  
▶ give a speech가 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므로 to give를 쓴다.
- (3) Sue는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다.  
▶ '~에게 기대다'라는 표현으로 'turn to'를 쓴다. 전치사가 빠져 있으므로 to를 추가한다.
- (4) 우선 수업 시간에 가르칠 것에 대해 소개하겠다.
- 3 (1) Mike는 자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하나가 되었다.  
▶ to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으로 쓰였고 '~가 되다'라는 의미로 'to be'를 쓴다.
- (2) Sandy의 아들은 지난 4월에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 never 혹은 only가 to부정사에 함께 쓰이면 부사적 용법의 결과를 나타낸다.
- (3) 우리는 세계일주를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 '여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므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부정사이다.
- (4) Jamie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하기 시작했다.  
▶ '체중을 줄이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므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부정사이다.
- (5) 너는 그와 말을 해 보면 그를 천재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 to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한 경우이다.
- 4 (1) 범죄 현장에서 아무 증거도 발견되지 못했다.  
▶ 아무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뜻이므로 가능의 의미이다.
- (2) 네가 승진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 if절에 쓰인 be to부정사는 의도를 나타내어 '~하려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3) 너는 내일까지 사물함에 있는 너의 모든 소지품을 치워야 한다.  
▶ 내일이라는 시한이 있으므로 치워야 한다는 의무를 뜻한다.
- (4) Sam은 그의 고향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 never와 같은 강한 부정부사와 be to부정사가 함께 쓰여 운명의 의미를 나타낸다.
- (5) Clark은 모레 여기 도착할 예정이다.  
▶ 왕래발착 동사와 be to부정사가 함께 쓰이면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Unit 2 동명사

p.31

### Check Up

- 1 (1) to please (2) meeting (3) to say (4) to lock (5) laughing
- 2 (1) to sell (2) arguing (3) to stay (4) to learn (5) using
- 3 ④
- 4 (1) am used to (2) looking forward to (3) don't feel like (4) have been busy (5) is no use
- 1 (1) Tim은 항상 그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  
▶ try 다음에 to부정사가 쓰여야 '~하려고 애쓰다'의 의미이다.
- (2) 나는 그 식당에서 처음 너를 만났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 예전에 만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ing형을 쓴다.
- (3) Jane은 Ms. Baldwin에게 인사를 하려고 멈췄다.  
▶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표현은 stop 다음에 to부정사를 쓴다.
- (4) 나는 창문을 잠그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 누군가 내 아파트에 침입했다.  
▶ 해야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므로 to부정사를 쓴다.
- (5) 갑자기 Kate는 웃음을 멈추고 대신 울기 시작했다.  
▶ stop의 목적어를 써서 ~을 멈추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명사를 쓴다.
- 2 (1) Tammy는 London에 있는 그녀의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 (2) Lenny는 그의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썼다.  
▶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 (3) 어린 남자애들은 종종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기를 거부한다.  
▶ refus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 (4)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 expect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 (5) Ken은 그의 아파트에서 불법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부인했다.  
▶ den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다.
- 3 ① 수년 간 국내 경제를 부양하는 일이 실패하고 있다.  
② 선생님은 두 여자애들에게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③ 나는 너희 모두가 시간을 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 ④ Fred의 여동생은 자기 방에서 항상 TV만 보고 있다.  
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 ①, ②, ③, ⑤는 동명사로 쓰여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반면,  
④ watching은 현재 진행형에 쓰인 현재분사이다.

- 4 ① 나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데 익숙하다.  
② 나는 너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③ 나는 오늘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먹고 싶지 않다.  
④ 폭풍우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을 재건하느라 바빴다.  
⑤ 매장의 정책 때문에 환불을 요구해도 소용없다.

## Unit 3 분사

p.33

### Check Up

- 1 ③
- 2 (1) broken (2) seated (3) driving (4) confused (5) waving
- 3 (1) (Having been) praised by his teacher (2) It having snowed
- 4 ② 5 ①
- 1 •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은 반항을 나타낸다.  
• Cindy는 볼에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다.  
▶ 팔은 cross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분사를 쓰고, 눈물은 flow하는 주체이므로 능동형 분사를 쓴다.
- 2 (1) 나는 깨진 램프를 밖에서 내놓았다.  
▶ 램프는 무엇을 깨뜨리는 주체가 아니라 깨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분사를 쓴다.
- (2) Pam은 아침 내내 소파에 앉아 있었다.  
▶ seat은 타동사로 '~을 앉히다'라는 의미이므로 본인이 앉아 있을 때는 수동형 분사를 쓴다.
- (3) 나는 Trevor가 빨간 불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 Trevor가 목적어이고 다음은 목적보어 자리이다. Trevor는 운전하는 주체이므로 능동형의 현재분사가 보어로 와야 한다.
- (4) 이 지침서는 나를 더욱 더 혼란시켰다.  
▶ 목적어인 me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confuse라는 타동사가 쓰였다. 지침서는 나를 혼란시키고, 나는 confuse당하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분사가 온다.
- (5) Linda는 손을 흔들며 게이트로 들어갔다.  
▶ 부대상황을 나타내므로 주어가 같다. wave하는 주체도 Linda이므로 능동형 분사로 쓴다.
- 3 (1) Tom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선 시제로 쓰였으므로 완료분사를 써서 고친다.
- (2) 한 주 내내 눈이 왔기 때문에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웠다.  
▶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선 시제로 쓰였으므로 완료분사를 써서 고친다.
- 4 ① 엄격히 말하면 그녀는 너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 ② 나는 보통 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
- ③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나는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했다.
- ④ 지루해서 나는 도서관에서 나왔다.
- ⑤ 날이 흐리니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 ▶ ① 엄격히 말하면: **Strictly speaking** ② **with**의 부대상황은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following→followed) ③ 분사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붙인다. ④ **feel**은 자동사이므로 수동형 분사로 분사구문을 만들 수 없다.(→Feeling bored) ⑤ 주어가 다른 독립분사구문이다. 앞에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it**이 주어이므로 주어를 써 줘야 한다.(→It being cloudy)

- 5** 여기서 우회전하면 기차역이 나올 겁니다.  
▶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생략하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가 같으면 생략하고, 능동형이면 동사를 ~ing로 고치면 된다.

## Practice Test

p.34

- 1** (1) of (2) what (3) cry  
**2** (1) To be frank with you (2) To make matters worse  
(3) Generally speaking (4) Considering his age  
(5) Compared with last year  
**3** ① **4** ① **5** ② **6** ③ **7** ③ **8** ⑤ **9** ③  
**10** (1) ① (2) ① **11** ②
- 1** (1) 그가 나를 밤 늦게 차를 태워다 준 것은 정말 친절했다.  
▶ **nice**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of**를 쓴다.  
(2) 나는 방학 동안 무엇을 읽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 **read**의 목적으로 의문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what**이 온다. **how**는 의문 부사이다.  
(3) 나는 그가 자신의 방 바로 밖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 **hear**는 지각동사이므로 목적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
- 2** (1)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 의미상 솔직히 털어놓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나는 타이어가 펑크 났다. 설상가상으로 기름도 떨어졌다.  
▶ 좋지 않은 일이 겹쳐 일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설상가상으로'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어는 한국인들에게 배우기 쉽지 않다.  
▶ 일반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다.  
(4)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Peter는 훨씬 더 젊어 보인다.  
▶ 젊어 보인다는 말은 나이를 기준으로 쓰는 말이다.  
(5) 작년과 비교해서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었다.  
▶ 줄어들었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 3** 그가 잘못을 인정하더니 정직하다.  
▶ **honest**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부정사의 의미

상 주어에 **for**대신 **of**를 쓴다.

- 4** Carl은 아직도 그의 에세이에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 '의문사+to부정사'를 절로 고칠 때 **should**를 쓴다.
- 5** 네가 똑 같은 실수를 계속 하면, 너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 **kee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계속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6** ① Jenny는 그녀의 손톱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물어뜯기 시작했다.  
② 내 아내가 죽은 후에 나는 혼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에 익숙해 지는데 힘들었다.  
③ **Greg**는 주유소가 보이자 기름을 넣기 위해 멈췄다.  
④ **Kelly**는 크게 싸운 이후에 **Sam**과 말하기를 거부했다.  
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너와 함께 일한 것이 즐거웠다.  
▶ ①, ⑤ **give up,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② '**get used to**'다음에는 동명사가 오며, ④ **refus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 7** 우리는 옆 집에 살지만 서로 만나거나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과정은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와 같으면 생략하고, 능동일 경우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꿔 준다. 그러나 의미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분사 앞에 접속사를 두기도 한다.
- 8** ① **Zack**은 나를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다.  
② 매 주말에 신선하게 구워진 쿠키를 먹는다면 좋을 것이다.  
③ 아프가니스탄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군인의 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④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혼란스러운 결과를 낼 수도 있다.  
⑤ 내 동생은 어젯밤에 집이 털렸다.  
▶ ⑤ **have**가 사역동사이고 '당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목적어가 **house**고 집은 털리는 대상이므로 목적보어는 수동형 분사 **robbed**를 쓴다.
- 9** 수술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Robert는 전 과정에 대해 매우 걱정이 되었다.  
▶ 의미상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쓰고, 주어와 같아서 생략 되었으므로 **he**로 받고, 완료분사를 썼다는 것은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대과거를 쓴다.
- 10** (1) 쉬운 영어로 쓰여 있어서 이 이야기 책은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다.  
▶ 주어와 책이고, 책은 쓰여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형으로 고친다. (→Written)  
(2)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수영하러 바닷가에 나갔다.  
▶ '먹다'라는 동사는 **have** 혹은 **eat**를 써야 한다. (→Having had 또는 Having eaten)
- 11** 그녀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나는 지금 그녀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다.  
▶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을 쓴다.

## Grammar Reading

p.36

- 1** ② **2** ③ **3** ⑤ **4** Don't forget to take your briefcase.



5 ① 6 ① 7 To make matters worse

8 for them → of them

1 **해석** | '매년 여름 우리 가족과 나는 시골로 여행을 간다. 우리는 농장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내려간다.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할아버지는 여러 다양한 농작물을 잘 아신다. 그는 가을에 많은 채소를 수확한다.

▶ 시골에서 자란 것은 현재의 지식이 있게 한 기반이 되므로 앞선 시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raise는 '키우다'라는 타동사이므로 완료분사를 쓰되 수동으로 쓴다.

2 **해석** |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려 죄송하지만, 월요일 회의를 위한 회의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님들의 명단을 보내드립니다. 회의에 초대된 모든 손님들을 위한 간식을 제공할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 앞의 손님들은 초대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분사로 수식해야 한다.

3 **해석** | '한국 고등학교 학생의 삶은 매우 고달프다. 많은 학생들이 하루의 반 이상을 공부한다. 그들은 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들은 보충 공부를 위해 여러 학원에 다닌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다.

- ① Lucy가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 ② 그가 우리와 함께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동의했다.
- ③ Sue는 성적을 알아 보기 위해 이 교수님을 찾아보았다.
- ④ 강좌에 등록하려면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 ⑤ 나는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 to do는 앞의 homework 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①, ②는 명사적 용법, ③, ④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⑤에서 to prepare는 앞의 time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형용사적 용법이다.

4 **해석** | '우리 아버지는 엄마 없이는 제시간에 출근을 못하신다. 매일 아침 우리 엄마는 아빠에게 빠뜨리고 간 것을 챙겨 가라고 일깨워 줘야 한다. 오늘도 엄마는 아빠에게, "서류가방 챙겨가는 것 잊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에 웃으셨다.

▶ forget이나 remember는 '앞으로 할 일을 잊어버리다' 혹은 '기억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5 **해석** | '여자 피겨스케이팅가 김연아 덕분에 많은 한국인들에게 흥미로운 경기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많은 챔피언 타이틀을 땀다. 그녀는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 game은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는 주체이므로 능동형 분사로 수식한다.

6 **해석** |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어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른다. 상품의 질과 가격을 비교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 difficult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앞에 for를 써야 한다.

7 **해석** | 'Susan은 그녀의 알람시계가 울리지 않아서 늦게 일어났다. 그녀는 서둘러 버스정류장에 갔지만 버스는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숙제를 책상 위에 두고 왔다. 다음 번에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설상가상으로'라는 독

립부정사를 쓴다.

8 **해석** | '경찰은 도시의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돕는다. 그들이 매일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용감한 일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시민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 brave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의미상 주어 앞에 of를 써야 한다.

Grammar in Writing

p.38

1 (1) It is difficult for me to do several tasks (2) We will give you books to refer to. (3) was no one annoying so Jane could fully focus (4) Located in a remote area, the village lacks basic services (5) How can I remember to take my medicine?

2 ③

3 (1) Visiting (2) rising (3) Having (4) written (5) working (6) leave (7) to help

4 (1) regulating (2) Editing (3) submitted (4) to bring (5) to use

5 (1) Spending most of the annual budget, the city government decided to cancel the construction. (2) It being warm and sunny, we went hiking. (3) Having supported her family all her life, she became old and ill. (4) Working as a supervisor, he was responsible for each and every project.

6 (1) to take part in (2) To be frank with you (3) for kids (4) to work (5) reading

1 (1) ▶ 가주어가 쓰인 구문은 'It ~ for 목적격 to부정사 ~'의 순서이다.

(2) ▶ '참고하다'라는 말을 나타낼 때는 refer다음에 전치사 to를 붙여야 한다.

(3) ▶ no one같은 부정대명사는 형용사나 분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4) ▶ '위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located'라는 과거분사를 써야 한다. locat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village가 위치시키는 대상이 된다.

(5) ▶ remember to ~할 것을 기억하다

2 (1) 그 파티에 초대되었지만 Dan은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 분사구문에서 보통 접속사를 생략하지만 강조할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기도 한다.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인 경우는 앞에 being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he invited → he was invited)

(2) 모든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주택에 사는 것보다 낫다.

▶ 문맥상 같은 시제를 써야 한다. (were → are)

- (3) 나를 작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첫 소설의 출시에 들떠 있다.
  - ▶ 앞의 분사구문이 완료분사를 썼으므로 현재보다 앞선 시제이고 의미상 현재완료가 적합하다.
- (4) John은 그의 도구 상자를 집어 들고 다음 일을 향해 떠났다.
  - ▶ 순서대로 일어난 부대상황을 나타내므로 앞의 절의 시제에 맞게 뒤의 절도 과거동사를 쓴다. (leaves → left)
- (5) 작은 섬에서 살아서 Anne은 수영과 잠수를 아주 잘한다.
  - ▶ 이유를 나타내므로 접속사 as를 쓰고 단순분사이므로 시제를 맞춘다. (lived → lives)

- 3**
- (1) 방문교수들은 토론에 참석할 것이다.
    - ▶ 교수들은 방문하는 주체이므로 능동형 현재분사를 쓴다.
  - (2)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Doctors.com은 일부 지점의 문을 닫았다.
    - ▶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쓸 수 있다.
  - (3) 건강보험이 없어서 Gary는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다.
    - ▶ Gary는 건강보험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능동형 현재분사를 쓴다.
  - (4) 너는 그 사진들을 이용하려면 서면 허가서가 필요하다.
    - ▶ permission은 쓰는 주체가 아니라 쓰여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과거분사를 쓴다.
  - (5) 파업 중인 직원들은 무보수로 야근하는 것에 반대했다.
    - ▶ object to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온다.
  - (6) 우리 상사는 결승전을 볼 수 있게 우리를 한 시간 일찍 보내 주었다.
    - ▶ let은 사역동사이므로 목적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를 쓴다.
  - (7) 나는 네가 원한다면 기꺼이 너를 돕겠다.
    - ▶ be willing은 to부정사와 함께 쓰여 '기꺼이 ~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 4**
- (1) 우리의 새로운 난방 체계는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데에서 기능이 더 나아졌다.
    - ▶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를 쓴다.
  - (2) 기사를 편집하다가 Kevin은 일부 오류를 발견했다.
    - ▶ Kevin은 edit하는 주체이므로 능동형 현재분사를 쓴다.
  - (3) 상사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마케팅 전략을 담고 있다.
    - ▶ 앞의 report를 수식하며, 보고서는 제출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과거분사를 쓴다.
  - (4) Laura는 회의에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 ▶ 회의에 가져올 것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to부정사를 쓴다.
  - (5) 이 OHP를 어떻게 쓰는지 내게 알려줄래?
    - ▶ 의문사 다음에 to부정사를 써서 명사적 용법으로 show의 목적어를 나타낸다.
- 5**
- (1) 시 정부가 대부분의 연간 예산을 써버렸기 때문에 건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같은 시제이고 같은 주어이므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spending으로 고친다. 단, 앞의 주어 생략되었으므로 뒤의 대명사를 명사로 바꿔 준다.

- (2)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해서 우리는 하이킹을 갔다.
  - ▶ 주어가 다른 독립분사구문이므로 접속사만 생략하고, 주어는 it을 써 주고 같은 시제이므로 being을 쓴다.
- (3) 그녀는 평생 가족들을 부양하고 나서 늙고 병들었다.
  - ▶ 주어는 같지만 시제가 앞선 시제이므로 Having supported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만든다.
- (4) 그가 관리자로 일했을 때, 그는 모든 프로젝트를 책임졌다.
  - ▶ 주어와 시제가 같으므로 단순분사인 Working으로 시작한다.

- 6**
- (1) Wendy는 참석해야 할 여러 워크샵이 있다.
    - ▶ 앞으로 참석할 워크샵을 의미하므로 이런 경우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써야 한다.
  - (2) 솔직히 말하면, 나는 사회학 학위가 없다.
    - ▶ 독립부정사에서 to가 빠진 경우이다.
  - (3) 아이들이 차에 홀로 남아 있는 것은 위험하다.
    - ▶ dangerous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므로 of 대신 for를 쓴다.
  - (4) 일부 직원들은 주말에 일하기를 거부했다.
    - ▶ refuse는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 (5) 우리 아버지는 국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는 것을 즐긴다.
    - ▶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 Actual Test

p.40

**1** ① **2** ① **3** ④ **4** ② **5** Feeling ill, Adam called in sick.

**6** ② **7** ③ **8** damaged **9** ④

**10** He was busy tending the garden all day long.

**11** ② **12** ⑤ **13** ⑤ **14** drawing **15** ③ **16** I should

- 1**
  - 네가 그를 불 속에서 구한 것은 용감했다.
  - 네가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 것은 정말 친절했다.
    - ▶ 앞에 모두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였으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앞에 of를 붙인다.
- 2**
  - ▶ 보어는 명사구를 써야 하고 명사구는 to부정사나 동명사로 시작한다.
- 3**
  - 법체계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 보어로 쓰인 명사구, 즉 여기서는 to부정사를 고른다.
- 4**
  - ① 신뢰 없이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나는 이 에세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 ③ 네게 사실을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알코올중독이었다.
  - ④ Dr. Anderson의 강의는 항상 감명을 준다.
  - ⑤ 어제 배달된 도자기는 금이 갔다.

▶ ① 진주어가 되려면 be 앞에 to가 있어야 한다. ② how to부정사를 know의 목적으로 쓴 맞는 문장이다. ③ 독립부정사 To tell you the truth로 고친다. ④ Dr. Anderson의 강의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주체이므로 능동형 현재분사를 쓴다. (inspired→inspiring) ⑤ 도자기는 배달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과거분사로 고친다. (delivering→delivered)

- 5 아담은 몸이 아파서 결근한다는 전화를 했다.  
▶ 주어와 시제가 같으므로 Feel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쓴다. 단, 주어가 생략되므로 he는 Adam으로 고친다.
- 6 지도를 보면 그 은행을 찾게 될 것이다.  
▶ 뒤에 will이 쓰였으므로 분사구문이 조건절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7 • 네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 하는 것을 잊지 마라.  
• 네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앞 문장에서는 update가 keep의 목적보어로 information을 보충 설명한다. 정보는 update되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를 쓴다. 뒷 문장에서는 '계속 ~하다'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keep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 8 어떤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은 파손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형 과거분사 damaged를 쓴다.
- 9 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서 최대한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② 영업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Jane Cooper이다.  
③ 우리의 새로운 광고에 대한 초기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④ 그들은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고용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⑤ 가장 저렴한 여행 방법은 배낭여행이다.  
▶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온다.
- 10 ▶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의미의 동명사 관용구는 'be busy ~ing'이다.

### [11-14]

많은 부모들이 공교육에 대해 걱정하면서 더 많은 부모들이 그 해답으로 자택학습을 찾고 있다. 자택학습은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아이들에게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부모들이나 개인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닛별 학습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같은 주제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 유닛 주제가 해바라기라면 아이들은 해바라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면서 과학을 배운다. 그들은 또한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미술을 배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학생의 학습속도 기반 학습'이다. 이 방법에서는 학생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공부한다. 그들은 몇 과목을 혹은 몇 과를 공부할지를 결정한다.

- 11 ▶ worry가 자동사로 쓰였고 주절과 동일 시제이므로 단순 분사구문인 Worrying으로 시작한다.
- 12 ▶ '~하는 데, ~하기 위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to부정사의 목적을 쓴다.
- 13 ▶ 과목이나 레슨은 다루지는 대상이므로 covered로 고친다.
- 14 ▶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를 쓴다.
- 15 귀신들이 살아나는 이미지는 등골이 오싹하다.  
▶ 귀신들은 살아나는 주체이고 뒤의 분사가 앞의 명사를 수식하

는 형용사 역할을 하므로 coming의 형태로 수식해야 한다.

- 16 아무도 내게 우울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  
▶ 의문사+to부정사 = 의문사+주어+should+동사

## Chapter 03



## 형용사와 부사

### Unit 1 형용사의 역할과 위치

p.45

#### Check Up

- 1 ⑤
- 2 (1) is→are (2) such long a day→such a long day (3) special something→something special (4) asleep→sleeping (5) the all broken toys→all the broken toys
- 3 (1) similar (2) lonely (3) alive (4) valuable (5) The rich
- 4 (1) such a pleasant life (2) Is there anyone available (3) spiders poisonous to humans (4) these two large cotton shirts
- 1 ① Don은 그의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정치가들은 여론을 두려워해야 한다.  
③ 구두점 표시의 기능을 배우는 것은 유용하다.  
④ 나는 오늘 배운 것에 만족했다.  
⑤ 나는 Ivan처럼 유머 있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 ①, ②, ③, ④ 형용사들은 자동사의 보어로 쓰인 반면, ⑤ humorous는 앞의 anyone이라는 부정대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였다.
- 2 (1) 노숙자들은 보통 사회의 소외자로 취급된다.  
▶ 'the + 형용사'는 복수보통명사로 취급하므로 복수동사 are로 받는다.  
(2) 시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하느라고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다.  
▶ such 다음에 어순은 'a + 형용사 + 명사'이다.  
(3) 나는 우리 오빠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다.  
▶ something 같은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4) 잠들어 있는 개를 깨우지 마라.  
▶ asleep이라는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므로 sleeping으로 고친다.  
(5) 너는 고장난 장난감을 모두 버리는 게 좋겠다.  
▶ all은 정관사 the를 쓸 때 뒤에 써야 한다.
- 3 (1) 쌍둥이들은 보통 비슷한 발달 형태를 가진다.  
▶ alike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므로 쓸 수 없다.  
(2) Jeremy는 아주 외로운 사람처럼 보인다.  
▶ alone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므로 쓸 수 없다.  
(3) 내가 한 시간 전에 잡은 물고기가 아직도 살아 있다.

▶ alive는 서술적 용법에 쓰이는 형용사.

- (4) Linda가 내게 준 이 책은 많은 귀중한 정보가 들어 있다.  
▶ worth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므로 쓸 수 없다.
- (5)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 the에 형용사를 붙여 복수보통명사를 나타낼 수 있다.

- 4** (1) ▶ such 다음에는 'a+ 형+ 명'의 어순이다.  
 (2) ▶ anyone은 부정대명사이므로 형용사인 available이 뒤에서 수식해야 한다.  
 (3) ▶ spiders를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 한 단어가 아니라 형용사구이므로 뒤에서 수식한다.  
 (4) ▶ 여러 개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순서는 '지시+ 수량+ 성상+ 명사형 형용사+ 명사의 순이다.

## Unit 2 수량 형용사

p.47

### Check Up

- 1** (1) a little (2) a little (3) a few (4) few (5) Many a (6) amount  
**2** (1) only a little homework (2) only a few applicants (3) only a little information (4) Only a few students (5) only a little rain  
**3** ④  
**4** (1) A number of (2) the first (3) as tall as (4) a large amount of (5) plenty of
- 1** (1) 우리는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 difficult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 little을 쓴다.  
 (2) 지금 너와 얘기 좀 할 수 있니?  
▶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이므로 관사를 붙인다.  
 (3) 걱정 마. 며칠 있으면 더 나아질 거야.  
▶ day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a few를 쓴다.  
 (4) 너의 에세이는 너무 훌륭해서 내가 거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 에세이를 잘 써서 실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부정으로 관사를 빼고 쓴다.  
 (5)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이래로 많은 날이 지났다.  
▶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 many a를 붙여서 many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6) 새로운 발전기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 에너지는 셀 수 없으므로 amount를 쓴다.
- 2** (1) 나는 숙제가 조금밖에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 homework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다.  
 (2)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이 단지 몇 명밖에 없었다.  
▶ 면접과 연결되는 명사는 지원자이고 이는 셀 수 있는 명사이다.  
 (3) 기계를 사용하는 데에는 단지 약간의 정보만 있으면 된다.

▶ 기계를 사용하려면 알아야 하기에 information이 필요하고 이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다.

- (4) 단지 몇 명의 학생들만이 그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이해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학생이고 셀 수 있는 명사이다.
- (5)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는 비가 조금밖에 안 왔다.  
▶ 샌프란시스코 사람들과 작년과 연결되는 것은 rain이고 셀 수 없는 명사이다.

- 3** ① 장애인들은 훨씬 더 절박하게 일자리가 필요하다.  
 ② 내 교과서는 네 것보다 두 배 더 두껍다.  
 ③ 이것이 고등학교 졸업 후 내 첫 직장이다.  
 ④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⑤ 우리는 무료로 나눠줄 가구가 좀 있다.  
 ▶ ④ many a는 many와 같은 의미이지만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를 취한다. (people → person)
- 4** (1) 많은 외제차들이 국내 브랜드의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는다.  
▶ 차는 셀 수 있으므로 a number of를 쓰고 plenty of는 충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므로 어색하다.  
 (2) Hillary Clinton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  
▶ 뒤에 단수명사가 있고 문맥상 가장 적합한 서수를 쓴다.  
 (3) 이 사무실 건물은 우리 아파트 건물의 세 배 높이이다.  
▶ 건물끼리 높이를 비교하고 있다.  
 (4) 기름 유출은 메탄가스를 다량 유발시켰다.  
▶ gas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양을 나타내는 amount를 쓴다.  
 (5)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그럭저럭 살아갈 충분한 돈이 있다.  
▶ get by라는 표현에서 단서를 얻어 살아갈 만한 돈은 충분하다는 의미의 plenty of를 쓴다.

## Unit 3 부사

p.49

### Check Up

- 1** (1) hardly never → hardly (ever) (2) seldom I have → seldom have I (3) often will → will often (4) never would → would never (5) Rarely the election has been → Rarely has the election been  
**2** (1) close (2) late (3) nearly (4) highly (5) mostly  
**3** (1) already (2) Neither (3) yet (4) still (5) So **4** ⑤
- 1** (1) 그 관리자는 실 시간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 hardly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never를 ever로 고치거나 혹은 빼다.  
 (2) 나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좀처럼 가져 본 적이 없었다.  
▶ seldom이라는 부정부사가 문두에 나왔으므로 주어 동사를 도치한다.  
 (3) 너는 이 동네에서 영화배우들을 종종 보게 될 것이다.

- ▶ often은 빈도부사이므로 조동사 뒤에 넣는다.
  - (4) 우리 팀은 내가 없었다면 경기에서 절대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 ▶ never는 빈도부사이므로 would라는 조동사 다음에 쓴다.
  - (5) 아프리카에서 선거가 그렇게 기대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 ▶ rarely라는 부정어가 문두에 나왔으므로 주어 동사를 도치한다.
- 2**
- (1) Jessica는 들어와서 내게 가까이 앉았다.
    - ▶ '가까이'라는 의미의 부사는 close이다. closely는 '면밀히, 자세히'의 뜻이다.
  - (2) 파티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밤 늦게까지 있었다.
    - ▶ late는 '늦게'라는 뜻이고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다.
  - (3) 내 사촌은 9년 전에 유성에 맞을 뻔했다.
    - ▶ '거의 ~할 뻔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는 nearly와 almost이다.
  - (4) 우리 학교는 교육 감시 기구에 의해 크게 칭찬받아 왔다.
    - ▶ high는 '높이'이고 highly는 '대단히'의 의미이다.
  - (5) 그 기사는 주로 가정 폭력에 관한 것이다.
    - ▶ most는 '가장 많이'의 의미이고, mostly는 '주로'라는 뜻이다.
- 3**
- (1) 내가 집에 갔을 때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 ▶ 가기 전에 이미 잠들어 있었으므로 already를 쓴다.
  - (2) 본사는 변화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사들도 마찬가지이다.
    - ▶ 앞의 문장이 부정이므로 neither를 쓴다.
  - (3) Jane은 아직 첫 소설을 출판하지 못했다.
    - ▶ 부정문에서 '아직'의 의미로 yet을 쓴다.
  - (4) 나는 아직도 내 학생들 대부분의 이름을 기억한다.
    - ▶ '여전히' 또는 '아직도'라는 의미는 still을 쓴다.
  - (5) David는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나도 그렇다.
    - ▶ 앞 문장이 긍정이므로 so를 쓴다.
- 4**
- ① 나는 안에 누가 있는지 보려고 차에 가까이 다가갔다.
  - ② 걸을 때 무릎을 높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여행하는 동안 나는 주로 값싼 호텔에서 묵었다.
  - ④ 나는 아직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 ⑤ 세상이 끝난 건 아니다. 너는 아직 또 다른 기회가 있다.
    - ▶ 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므로 close를 쓴다. ② 높이 올리는 것이므로 high를 쓴다. ③ '주로'라는 의미가 필요하므로 mostly가 옳다. ④ 부정문에서 '아직'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yet을 쓴다. ⑤ '여전히' 혹은 '아직은'의 의미로 still을 쓴다.

## Practice Test

p.50

- 1** (1) So (2) will (3) did (4) Neither (5) should (6) was
- 2** (1) a few (2) Little (3) plenty of (4) few  
(5) A large number of (6) a little
- 3** ① **4** ② **5** ② **6** ③ **7** ① **8** ④ **9** ③ **10** ④

- 1**
- (1) John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Sam도 그랬다.
    - ▶ 긍정문이고 일반동사의 과거형이므로 so와 did를 쓴다.
  - (2) Brian이 가면 Amy는 따라갈 것이다. Angela도 그럴 것이다.
    - ▶ 긍정이고 미래의 조동사 will이 있으므로 so와 will을 쓴다.
  - (3) Joe는 지난 달에 해고되었다. 나도 그랬다.
    - ▶ 긍정이고 일반동사의 과거형이므로 so와 did를 쓴다.
  - (4) Becky는 그녀의 실종된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도 그랬다.
    - ▶ 부정이고 일반동사의 과거형이므로 neither와 did를 쓴다.
  - (5) 나는 그의 생각을 채택했어야 했다. 너도 마찬가지다.
    - ▶ 긍정이고 조동사 should가 있으므로 so와 should를 쓴다.
  - (6) 나는 불이 났을 때 그 버스에 없었다. 내 여동생도 없었다.
    - ▶ 부정이고 be동사가 있으므로 neither와 was를 쓴다.
- 2**
- (1) 몇 마일만 더 걸어가면 조그만 마을이 나올 것이다.
    - ▶ mile은 셀 수 있는 명사이고 긍정의 의미이므로 a few를 쓴다.
  - (2) 나는 네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 ▶ 주어 동사가 도치된 경우이므로 부정부사를 찾아서 쓴다. 문맥상 셀 수 없는 경우이므로 little을 쓴다.
  - (3) 충분한 생선을 먹는 것은 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충분한 섭취를 의미하므로 plenty of가 맞다.
  - (4) 불행하게도 정치계에는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 ▶ unfortunately가 있으므로 부정의 의미인 few가 쓰여야 한다.
  - (5) 공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나무들이 도로를 따라 심어질 것이다.
    - ▶ 나무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
  - (6) 매일 아침 나는 우유를 약간 타서 커피를 마신다.
    - ▶ 우유는 셀 수 없는 명사이고 문맥상 긍정이므로 a little을 쓴다.
- 3** 환경에 대한 Jimmy의 에세이는 교수님에게 가장 큰 인상을 주었다.
  - ▶ '가장'이라는 의미의 부사는 most이다.
- 4** Justin은 동시대 예술가들에 의해 대단히 존경받는다.
  - ▶ 정도를 나타내는 '대단히'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는 highly이다.
- 5** 우리 팀은 일을 똑같이 나눴다.
  - ▶ '동등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는 evenly이다.
- 6**
- ① 그 항공사는 주로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특별가를 제공한다.
  - ② Kim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한다.
  - ③ Ian은 그의 조부모님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 ④ 나는 네가 뭐라고 하든 여전히 너의 친구로 남기를 원한다.
  - ⑤ 나는 주간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 ▶ ① usually는 빈도부사이므로 일반동사 offer 앞에 위치하며 ② extremely는 proud를 수식하므로 그 앞에 쓴다. ③ still은 여전히 남기를 원한다는 수식하므로 want앞에 쓰고, ⑤ 부정문에서 '아직'의 의미의 부사는 yet이다.
- 7** ▶ 뒤에 that절과 호응을 하려면 'such a 형용사 명사' 또는 'so 형용사 a 명사'의 구문을 쓴다.
- 8** ① 가끔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 ② 나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 ③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 ④ 누구 고집 세고 이기적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있어?
- ⑤ 이 분홍 솜사탕 5개 주세요.
- ▶ ④ someone 같은 부정대명사는 뒤에서 수식해야 하므로 someone stubborn and selfish로 고쳐야 한다.

- 9 ① 소위 한류 열풍이 너무 강해서 미래에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② 이번에는 경주 코스가 자전거 선수들에게 매우 힘들다.  
 ③ 일부 사람들은 아주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④ 요가를 하고 나서 나는 힘들지 않게 잠들기 시작했다.  
 ⑤ 체중을 줄이는 것은 분명 너를 건강하게 해 줄 것이다.  
 ▶ ①, ②, ④는 자동사의 보어로 쓰인 서술적 용법이고, ⑤는 목적 보어로 쓰였으며, ③은 food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였다.
- 10 A: 나는 평생 너를 다시 안 볼 것이다.  
 B: 나도 마찬가지다.  
 ▶ 부정부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고 부정문에 대해서는 neither를 써서 공감을 표현한다.

## Grammar in Reading

p.52

1 ③ 2 ① 3 ② 4 ③ 5 ⑤ 6 ⑤ 7 ②

8 Hardly had I done

- 1 일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선진국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내는 노력 역시 해야 한다.  
 ▶ the 형용사=복수보통명사
- 2 작년의 과학박람회에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단지 소수의 참가자들만 그들의 작품을 제출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크기나 주제에 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학교는 또한 학생이면 누구나 과학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참가자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문맥상 소수가 참여했다고 해야 한다.
- 3 Jamie는 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두 명이 반장 후보이다. 그녀는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 그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부정문에서 '아직'의 의미로 쓸 수 있는 부사는 yet이다.
- 4 Sherlock Holmes는 범죄 현장에 들어갔다. 그는 카펫의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와인 잔의 지문을 조사했다. 이로부터 그는 이미 누가 범인인지 결론을 내렸다.  
 ▶ already는 완료형 시제에서 조동사인 have/had 다음에 쓰인다.
- 5 Abraham Lincoln은 미국 16대 대통령이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앤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Gettysburg 연설로도 유명하다. 그는 미국 시민들로부터 대단하게 여겨진다.

▶ high 높이/highly 대단히

- 6 내 동생은 컴퓨터 게임이라면 항상 열정적이다. 그는 매일 적어도 세 시간씩 게임을 한다. 그는 최신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읽는다. 그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와 게임의 비밀을 끊임 없이 교류한다.  
 ▶ ① 빈도부사는 be동사 다음에 들어가고, ② it 다음에 동사는 comes가 되어야 하며 ③ 최상급 앞에는 the가 쓰이고 ④ constant는 trading 을 수식하므로 부사형 constantly로 쓰여야 한다.
- 7 우리 아버지는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퇴근했다. 그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기에 해고될 것을 걱정했다. 그는 실수로 돈을 잘못된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그는 상사가 뭐라고 할지 매우 걱정했다.  
 ▶ such a+형용사+명사
- 8 어느 날 나는 직장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차에 타고 출발했다. 목적지도 없었다. 나는 그저 운전하면서 내 머리카락에 바람을 쏘이고 싶었다. 나는 평생 이런 모험적인 일은 어떤 것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  
 ▶ hardly가 문두로 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 Grammar in Writing

p.54


- 1 (1) He has always been considered one of the best students (2) Finally,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of the crime. (3) Only a quarter of all the rescue workers (4) the guilty are convicted and the innocent walk free (5) Rarely do I eat meat
- 2 (1) ② (2) ① (3) ② (4) ② (5) ① (6) ②
- 3 so aggressive a plan
- 4 (1) highly (2) a few (3) little (4) such (5) amount
- 5 (1) 세계의 일부 지역의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거의 찾지 못한다./세계의 일부 지역의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약간의 희망을 보게 된다. (2) 목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목사는 죽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3) 너는 마음을 벌써 정했니?/나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4) 동기부여가 대단히 잘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직원들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높은 동기가 필요하다.
- 6 (1) hard (2) accurately (3) twice (4) late (5) lately (6) high
- 1 (1) ▶ 빈도부사인 always를 조동사 has 뒤에 쓴다.  
 (2) ▶ 문장을 수식하는 finally는 문두에 쓴다.  
 (3) ▶ all 다음에 정관사를 쓴다.  
 (4) ▶ 'the 형용사'를 써서 복수보통명사를 나타낼 수 있다.  
 (5) ▶ do를 쓰라고 나와 있으므로 도치를 시키기 위해 부정부사 rarely를 문두에 써야 한다.

- 2 (1)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비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온다.
- (2) 그녀는 거의 명품을 사지 않는다.  
▶ 의문문이 아닌 상태에서 도치가 되었으므로 부정의 부사를 문두에 넣는다.
- (3) Ralph는 그의 쌍둥이 동생으로 종종 오해받는다.  
▶ 빈도부사는 be동사 뒤에 온다.
- (4) 이 아령은 저것보다 두 배 무겁다.  
▶ 배수사는 원급 비교형인 'as ~ as' 앞에 온다.
- (5) 다행히 그는 다치지 않았고 그의 개도 다치지 않았다.  
▶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문두에 쓴다.
- (6) 가족 산업은 모피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closely가 수식하는 것은 related이므로 그 앞에 쓴다.
- 3 나는 그런 공격적인 계획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 so 형용사 a 명사
- 4 (1) 사람들은 모든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단히'라는 의미의 부사는 highly이다.
- (2) 나는 여름방학 동안에 영화 몇 편을 보았다.  
▶ 긍정의 문맥이고 film이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a few를 쓴다.
- (3)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거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 hope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little 을 쓴다.
- (4) Jason은 아주 단조로운 톤으로 그 시를 암송했다.  
▶ such a 형용사 명사
- (5) 이스트는 발효하는 동안에 다량의 산소를 흡수한다.  
▶ 산소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mount가 된다.
- 5 (1) ▶ a little은 긍정이고 little은 부정이다.
- (2) ▶ the dead는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the dying은 현재분사가 쓰였으므로 진행의 의미를 갖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3) ▶ 의문문에서 yet은 '별써'라는 의미이고,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4) ▶ highly는 '대단히'라는 의미인데 반해 high는 '높이' 혹은 '높은'의 의미이다.
- 6 (1) 너의 면역 체계는 너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 '열심히'를 나타내는 부사는 hard이고 hardly는 '거의 ~ 않는'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 (2) 정확히 대답하는 것이 빨리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accurate가 동사 answer를 수식하므로 부사로 쓰여야 한다.
- (3) 이 타이어는 보통 타이어보다 두 배 오래간다.  
▶ 배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배수사를 as ~ as 앞에 쓴다. (twice)
- (4) Cindy와 나는 밤 늦게까지 얘기했다.  
▶ late 늦게 /lately 최근에
- (5) 요새 어떻게 지내니?

▶ '요새, 최근에'를 나타내는 부사는 lately이다.

(6) 휴가철을 바로 앞두고는 물가가 대개 지나치게 오른다.

▶ '오른다'의 의미는 go high를 쓴다.



## Actual Test

p.56

1 ② 2 ① 3 ③ 4 ② 5 ② 6 ② 7 ②

8 The rich are 9 ② 10 has he worked overtime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③

- 1 네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면, 나도 그렇다.  
▶ 앞의 절이 부정이므로 neither를 쓴다.
- 2 ▶ rarely라는 부정부사가 앞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 3 A: 나는 왜 사람들이 기꺼이 시와 일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B: 나도 알겠어.  
▶ 앞 문장이 긍정이고 조동사 can이 나와 있으므로 so와 can을 쓴다.
- 4 ① 여러 가지 요인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데 작용한다.  
② 나머지 부상자들은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③ 너는 회사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해 봤다.  
⑤ 심지어 어린 아이도 너보다 더 잘 알 것이다.  
▶ ① factor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amount 대신 number를 쓴다. (→ a number of factors) ② the rest는 전체가 복수이면 복수 취급을 하는데 전체가 'the + 형용사(the wounded)=복수보통명사'이므로 were가 맞다. ③ all과 정관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는 all 다음에 the를 쓴다. ④ everything 같은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수식한다. (→everything possible) ⑤ even 심지어/evenly 동등하게 (→even)
- 5 Lenny는 현재 일 년 동안 그런 불쌍한 상황에서 살아오고 있다.  
▶ such a 형용사 명사 = so 형용사 a 명사
- 6 Tony는 프린터를 고치는 것을 계속 실패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 '여전히'의 의미의 부사 still을 쓰고 yet을 쓰려면 문장 끝에 써야 한다.
- 7 • 너는 점수를 올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내가 사고 현장을 봤을 때 나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 hard 열심히/hardly 거의 ~ 않는
- 8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 'the 형용사=복수보통명사'이므로 the rich를 받는 동사는 are이 되어야 한다.
- 9 ① 냉장고에 단지 약간의 치즈가 남아 있다.  
② 많은 여자들이 어리석은 사기에 넘어간다.  
③ 너는 Facebook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니?  
④ 우리는 거실에 둘 가구를 많이 샀다.  
⑤ Andy Chan은 대단히 감동적인 강의를 했다.

▶ ② many a는 단수명사, 단수동사와 함께 쓰인다.

10 그는 거의 아군을 하지 않았다.

▶ 부정 부사를 문두에 쓰면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야 한다.

[11-13]

현대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왜 성인과 심대들이 다르게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성인의 뇌가 심대의 뇌와 다르기 때문이다. 고급의 이미지 기술은 청소년의 뇌가 여전히 발달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전전두엽 피질을 포함한 뇌의 여러 부분이 청소년기에는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전전두엽 피질은 의사결정과 계획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다. 이는 일부 심대들이 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1 ▶ 둘 다 동사를 수식하므로 부사형으로 쓴다.

12 ▶ 아직도 발달 중이라는 의미로 still을 쓴다.

13 ▶ (a), (b), (c), (e)는 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인데 반해 (d)는 be동사의 보어로 쓰인 서술적 용법이다.

14 나는 균형을 잃었을 때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했다.

▶ nearly 는 '~할 뻔하다'의 의미로 동의어는 almost이다.

15 ▶ 배수를 나타낼 때는 배수사를 'as ~ as' 앞에 쓴다.

Chapter 04



가정법

Unit 1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완료, 혼합가정, if의 생략 p.61

Check Up

1 ⑤

2 (1) wouldn't joined → wouldn't have joined (2) Had been she → Had she been (3) wouldn't have seen → wouldn't see 또는 If Tom knew → If Tom had known (4) not 빼기 (5) would done → would have done

3 (1) have been (2) had been (3) donate (4) had (5) wouldn't believe

4 (1) had been more competitive / wouldn't have gone bankrupt (2) not been for his insight / would have been in danger (3) had not snowed / would not be so slippery

- 1 ① Jane이 좀 더 키가 크다면 모델을 할 수 있을 텐데.
  - ②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그에게 연락할 텐데.
  - ③ 그가 충분히 용감하다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텐데.
  - ④ 너는 백만 달러가 있다면 무엇을 하겠니?
  - ⑤ 그가 지난 달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시장으로 일하고 있을 텐데.
- ▶ ①, ②, ③, ④ 문장들은 if절에 과거동사와 주절의 'would [could] + 동사원형'으로 가정법 과거시제이나, ⑤ 문장은 if절은 가정법 과거완료이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인 혼합가정이다.

2 (1) 내가 피곤했다면 네게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 if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주절에는 'would have p.p.'를 써야 한다.

(2) 그녀가 집에 있었다면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 if를 생략하고 도치하는 경우 조동사인 had만 주어 앞으로 나간다.

(3) Tom이 사실을 안다면(알았다면) 다시는 나를 보지 않을(않았을) 것이다.  
▶ if절이 가정법 과거이므로 주절에는 'would + 동사원형'으로 써야 한다. 또는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If절에는 'had + p.p.'로 써야 한다.

(4) 내가 좀 더 똑똑하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 if절의 내용의 결과는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므로 not을 뺀다.

(5) 내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 if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주절에는 'would have p.p.'를 써야 한다.

3 (1) 지도가 없었다면 나는 길을 잃었을 것이다.  
▶ if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주절도 가정법 과거완료형인 'would have p.p.'를 써야 한다.

(2)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Nancy를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if절도 'had p.p.'를 쓴다.

(3) 내가 백만장자라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액의 돈을 기부할 것이다.  
▶ if절에서 if를 생략했지만 과거동사만 나와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하루에 여분의 한 시간이 더 있다면 나는 당연히 잠을 더 잘 것이다.  
▶ 주절에 가정법 과거가 쓰였으므로 if절에 과거동사를 쓴다.

(5) 내가 너라면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 if절에 가정법 과거가 쓰였으므로 'would + 동사원형'을 쓴다.

- 4 (1) ▶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 (2) ▶ 가정법 과거완료의 형태이나 if가 생략되어 Had가 앞으로 도치되어 있는 구문이다.
- (3) ▶ 어젯밤과 오늘을 비교하는 혼합가정이므로 if절은 가정법 과거완료로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쓴다.

Unit 2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if 대응어구 p.63

Check Up

- 1 (1) don't (2) have (3) should (4) were to (5) rains
- 2 (1) But for (2) To talk (3) were to (4) Suppose (5) otherwise
- 3 ③
- 4 (1) If it had not been for your efforts (2) If you spend a day with them.

- 1 (1) 점수를 올리지 않으면 너는 대학에 갈 수 없다.  
▶ 단순한 현재에 대한 가정인 가정법 현재이므로 현재로 쓴다.
- (2) 적절한 신분증이 없으면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 Unless는 not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not을 쓰지 않는다.
- (3) 혹시라도 너의 지원서가 거절되면 어떻게 할 거니?  
▶ 가능성이 낮은 가정법 미래를 나타낼 때 if절에는 should를 쓰고,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는 if절에 would를 쓴다.
- (4)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멈춘다면 4계절은 사라질 것이다.  
▶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법 미래는 if절에 were to를 쓴다.
- (5) 콘서트 동안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우비가 필요할 것이다.  
▶ 주절에 will을 보고 가정법 현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형 동사를 쓴다.
- 2 (1) 너의 시기 적절한 충고가 없었다면 나는 내 실수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 '~가 없다면, ~가 없었다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but for'와 'without'이 있다. 이 두 표현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완료에서 if절을 대신해서 쓰인다.
- (2) 그와 잠시만 얘기해 보면 그가 얼마나 유쾌한지 알게 될 것이다.  
▶ to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 (3)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미래의 if절에 were to를 쓴다.
- (4) 네가 직장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니?  
▶ suppose는 if대신 쓸 수 있는 단어이다.
- (5) 그는 분명히 매우 똑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 if not을 대신하여 otherwise를 쓸 수 있다.
- 3 ① 회원카드가 있으면 할인을 받을 것이다.  
② 승진을 하게 되면 야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③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면 나는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④ 너의 개입이 없다면 그들은 끝내 서로를 죽일 것이다.  
⑤ 너는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 ③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if절에 가정법 미래의 'were to'를 써야 한다.
- 4 ① 너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빗더미에 앉았을 것이다.  
▶ But for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완료에 모두 쓰일 수 있으므로 주절의 시제를 보고 가정법 과거완료임을 알 수 있다.
- ② 그들과 하루만 지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 주절의 will을 보고 가정법 현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heck Up

- 1 (1) starts→started (2) has→had (3) was→were (4) had been→were (5) slept→had slept
- 2 (1) hadn't accepted (2) as if (3) were (4) took (5) had done
- 3 (1) I wish (2) as if (3) It's time (4) would not
- 4 (1) I'm sorry you told someone about my secret. (2) In fact, you are not in big trouble. (3) I'm sorry he is not more polite to me. (4) In fact, she was not their servant.
- 1 (1) 엄마가 나를 어른으로 대접해 주기 시작할 때이다.  
▶ 'It's time'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
- (2) 내 남편이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완료가 와야 하는데 내용이 현재의 상태에 대한 바람이므로 had를 쓴다.
- (3) Angie는 마치 자신이 영화배우인 것처럼 행동했다.  
▶ 가정법 과거에서 be동사는 항상 were를 쓴다.
- (4) Tom은 마치 자신이 한국인인 것처럼 한국어를 한다.  
▶ 현재 상태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형으로 were를 쓴다.
- (5) 어젯밤에 좀 더 잤다면 얼마나 좋을까.  
▶ 어젯밤이라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형인 had slept로 고친다.
- 2 (1) Jim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 과거에 대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 (2) 그들은 마치 탈출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몰래 움직였다.  
▶ 문맥상 양보의 의미가 아닌 '마치 ~처럼'의 의미이므로 as if를 쓴다.
- (3) Ms. Vega는 고양이를 마치 자식처럼 돌본다.  
▶ as if 다음에는 가정법이며 상태를 나타내므로 가정법 과거형인 were를 쓴다.
- (4) 그녀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 'It's time'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가 오므로 과거동사를 쓴다.
- (5) 내가 어린 시절 기억에 남은 만한 무언가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 어린 시절은 과거를 나타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 3 (1) 내가 네가 속한 클럽의 회원이라면 좋을 텐데.  
▶ 현재의 상태에 대한 바람이며 가정법의 were이 쓰였으므로 I wish를 쓴다.
- (2) Nancy는 마치 사고를 직접 본 것처럼 말한다.  
▶ 과거에 봤던 것처럼 말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완료를 썼고 문맥상 as if를 쓴다.
- (3) 우리가 그녀를 보내 줘야 하는 시간이다.  
▶ that 절에 should나 과거동사가 오는 경우는 보기 중 It's time뿐이다.

- (4) 용감한 사람이라면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 주어인 명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가정법 과거이다.
- 4 (1) • 네가 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 네가 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해서 유감이다.  
▶ I wish에 대한 직설법은 I'm sorry로 시작하며 시제는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직설법에서는 과거형을 쓴다.
- (2) • 너는 큰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 사실 너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  
▶ as if 의 직설법은 본문의 내용처럼 in fact로 고치고 as if다음의 내용을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다.
- (3) • 그가 내게 좀 더 예의 바르면 좋을 텐데.  
• 그가 내게 더 예의 바르지 않아서 유감이다.  
▶ 가정법 과거이므로 현재형으로 쓴다.
- (4) • 그들은 그녀를 그들의 종처럼 대했다.  
• 사실 그녀는 그들의 종이 아니었다.  
▶ as if 절의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동일함을 의미.

## Practice Test

p.66

- 1 (1) would be (2) were not (3) had been (4) would join  
(5) had passed
- 2 (1) it had not been for your support (2) it were not for his  
knowledge (3) he didn't win (4) it not for your donation
- 3 ① 4 ① 5 ② 6 ① 7 ③ 8 ① 9 ④ 10 ②  
11 ③
- 1 (1) Jonathan이 더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지금 더 건강할 것이다.  
▶ if절은 가정법 과거완료이지만 주절에 now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혼합가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를 주절에 써야 한다.
- (2) 내가 그렇게 바쁘지 않다면 네가 연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주절이 가정법 과거이므로 if절에도 과거동사를 쓴다.
- (3) 내 동생이 조금 더 키가 컸다면 농구선수가 되었을 것이다.  
▶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if절에 had p.p.를 쓴다.
- (4) 그녀가 건강하다면 마라톤에 합류할 것이다.  
▶ 앞의 동사가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were이므로 뒤에도 가정법 과거형인 'would + 동사원형'을 쓴다.
- (5) 내가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지금 대학을 다닐 것이다.  
▶ 작년과 지금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혼합가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f절에는 가정법 과거완료인 had p.p.를 쓴다.
- 2 (1) 너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if절로 고칠 때 if it had not been for를 쓴다.
- (2) 그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을 것이다.

- ▶ 주절이 가정법 과거이므로 if절로 고칠 때 if it were not for를 쓴다.
- (3)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 가정법 과거완료를 직설법으로 고쳤으므로 과거형을 쓴다.
- (4) 너의 기부가 없다면 나는 대학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 if절에서 if를 생략하면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며 도치된다.
- 3 너는 무료 항공 티켓이 생긴다면 어딜 가겠니?  
▶ 가정법에서 if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은 suppose이다.
- 4 Becky와 전화로 이야기해 보면 Becky를 남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  
▶ 가정법에서 if절 대용어구 중 to부정사가 있다.
- 5 나는 서류를 타자 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읽지 못할 것이다.  
▶ comma가 있으므로 연결 부사가 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맥상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가 필요하다.
- 6 네가 동행해 주지 않았다면 너무 긴 여행이었을 것이다.  
▶ '~가 없다면' 혹은 '~가 없었다면'을 나타내는 말은 But for 혹은 Without이다.
- 7 ① 물이 없다면 우리는 심지어 며칠도 못 견딜 것이다.  
② 그의 경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③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④ 네가 행성 중 하나로 여행을 간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니?  
⑤ Cameron 아줌마는 마치 우리 엄마인 것처럼 내게 말을 한다.  
▶ ① 가정법의 시제는 if절과 주절을 맞춰 써야 한다. ② if를 생략하는 경우 동사만 주어 앞으로 나온다. (→ Had it not been for)  
④ 가정법 미래에서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if절에 were to를 쓴다. ⑤ 여기서 as if 다음 절의 시제는 가정법 과거형을 써야 한다.
- 8 ▶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if절은 had p.p. 주절은 'would have p.p.'인 것을 찾아야 하지만, 그런 보기가 없으므로 if 대용어구가 쓰인 것 중 주절의 시제가 제대로 쓰인 것을 찾는다.
- 9 ① 최선을 다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② 겁쟁이라면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다.  
③ 우리 그룹에 합류하려면 헌신을 해야 할 것이다.  
④ 그녀는 마치 성에 사는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다.  
⑤ 네 직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이다.  
▶ ④ as if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완료가 오는데 말했던 시제와 같은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 10 ① 네가 백만장자였다면 돈을 어떻게 썼을까?  
② 짜증나는 동료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겠는가?  
③ 오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난 너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너의 형을 불러 여기 왔어.  
④ Kelly는 자신이 직접 요리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⑤ 무엇이 잘못인지 내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할 수가 없다.  
▶ if 대용어구와 주절과의 시제를 맞춰 본다. 특히, ③번의 in case는 if를 대신하므로 뒤의 절이 주절이다. if절이 가정법 현재이므로 주절에는 현재동사인 am을 써야 한다.
- 11 • 내가 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 James는 자신이 유명인사인 것처럼 행동했다.  
▶ 문맥상 첫 문장은 바람을 나타내는 가정법이고, 다음 문장은 '마



치 ~인 것처럼'의 의미가 필요하다.

## Grammar in Reading

p.68

- 1 ③ 2 ⑤ 3 Had I known the fact 4 were 5 ⑤  
6 ⑤ 7 ② 8 for you to go

- 1 **해석** |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살 위험도 있고 돈과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는 직접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지 물어볼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상품권이 안전하다.  
▶ 주절이 가정법 과거형으로 나와 있고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므로 '내가 너라면'이라는 if절을 써야 한다.
- 2 **해석** | 나는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서 행운이다. 너는 가장 놀라운 요리사이고, 나 혼자서는 저녁식사 파티를 치르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모든 맛있는 요리를 위해 전문 출장 연회 서비스에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로 나와 있으므로 if절에 had p.p.를 쓴다. 특히, '~가 없었다면'이라는 표현은 정해져 있으므로 외워 둔다. 'if it had not been for' = 'had it not been for'
- 3 **해석** | 아파트 관리소속에서는 새로 들어온 모든 세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최근의 변화에 대한 어떤 정보도 그들에게서 받은 적이 없었다. 아파트가 가전제품·가구들로 완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 4 **해석** |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의 버릇을 망쳐놓기를 좋아한다. 지난 주말에 나는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나를 마치 공주처럼 대해 주셨다. 할머니는 꽃으로 나를 환영해 주셨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주셨고, 쇼핑도 데려가 주셨다. 할머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지기를 바라셨다.  
▶ as if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완료이며, 앞에 treated와 같은 선상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한다. 따라서 were로 고친다.
- 5 **해석** | 유학을 가는 것은 훌륭한 경험이고 나는 누구에게든 적극 추천한다. 유학은 외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때로 힘들고, 특히 휴가 동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 I wish 다음에 가정법을 써야 하며 이 경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즉, were로 고친다.
- 6 **해석** | 휴가철 동안 도로에는 더 많은 차량이 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기차 출발 시간에 늦는 일이 흔하다. 기차역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두 배로 잡아 놓는 것이 권고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것이다.  
▶ 보통 때의 두 배의 시간 여유를 마련해 두라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기차를 놓친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의 연결이 필요하다.
- 7 **해석** | 지난주에 우리 오빠가 법대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을 지내러

집에 왔다. 오빠의 귀가 환영 파티에서 그의 모든 친구들이 오빠가 공부 아닌 먹느라고 바빴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오빠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부 사람들은 살이 찌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는 것이라며 그럴 듯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 먹느라고 바빴던 것은 '~처럼 보이다'의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써야 한다.

- 8 **해석** | 크리스마스를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게 멋진 선물을 보내셨다. 두 분은 내게 카드도 써 주셨고 내년에는 건강하라고 소원도 빌어주셨다. 그러나 그 카드는 Jenny 앞으로 보낸 것이었고 내 이름은 Julie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셨다면 네가 그분들을 가서 봐야 할 때라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 it's time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가 오고, 이를 'for 의미상 주어 + to부정사로 고쳐 쓸 수 있다.

## Grammar in Writing

p.70

- 1 (1) had run a little faster, I could have caught (2) had some extra money, I would help him (3) had stayed in the hotel, you would have gotten (4) are more careful, you will make few (5) you in my shoes, what would you do
- 2 (1) were a true friend (2) it not for love (3) you heard him snore (4) you to forgive (5) I left earlier
- 3 (1) As he didn't have common sense, he did such a thing. (2) As you were not born in ancient times, you are civilized now. (3) As he didn't have surgery, he is not healthy now. (4) I'm sorry Ron wasn't elected as class president. (5) I'm sorry I don't have a house of my own.
- 4 (1) had been (2) were to (3) would have (4) Had it not been for (5) will
- 5 (1) would be (2) were (3) had been (4) had not drunk (5) moved (6) were (7) would not have promoted (8) were
- 6 (1) If you were to be born again, would you be a woman or a man? (2) If he had woken up early, he wouldn't have to run now.
- 1 (1) ▶ 과거사실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2) ▶ 현재사실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3) ▶ 과거사실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4) ▶ 현재사실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현재를 쓴다.  
(5) ▶ were이 나와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문장이고 if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1) 진정한 친구라면 네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함께 있을 것이다.  
▶ 주어가 if절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이고 'would + 동사원형'이 나와 있으므로 if절을 쓸 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  
(2)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 '~가 없다면'은 'if it were not for' 또는 if를 생략하고 'were it not for'로 쓴다.

- (3) 그가 코고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괴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 ▶ to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뒤에 'might + 동사원형'이 나와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 (4) 네가 그를 용서해야 할 때이다.
  - ▶ it's time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 또한 to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5) 조금 일찍 나섰더라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 ▶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므로 had가 먼저 나온 것이다.

- 3** (1) 그가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 ▶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직설법에서는 시제를 과거로 하고, 또한 반대 사실을 나타내야 하므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꾼다.
 (2) 네가 고대에 태어났다면 너는 문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 ▶ 혼합가정이므로 앞에는 과거로, 뒤에는 now와 함께 현재시제로 쓴다.
 (3) 그가 수술을 했다면 지금 건강할 것이다.
  - ▶ 혼합가정이므로 앞에는 과거로, 뒤에는 now와 함께 현재시제로 쓴다.
 (4) Ron이 학급 대표로 선출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 ▶ I wish에 대한 직설법은 I'm sorry이며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직설법에서는 부정의 과거형을 쓴다.
 (5) 내 소유의 집이 있다면 좋을 텐데.
  - ▶ I wish에 대한 직설법은 I'm sorry이며 가정법 과거이므로 직설법에서는 부정의 현재형을 쓴다.

- 4** (1) 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 ▶ 가정법 과거완료의 if절이 뒤로 간 경우이므로 had p.p.를 쓴다.
 (2)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 ▶ 가능성이 없는 가정법 미래에서는 were to를 쓴다.
 (3)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너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 ▶ if가 생략된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므로 would have p.p.를 쓴다.
 (4)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 ▶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if절도 had p.p.를 써야 하지만 if절이 생략된 형태만 있으므로 'had 주어 p.p.' 구문을 고른다.

- (5) 다음 달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나는 스포츠카를 살 것이다.
  - ▶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현재를 쓴다.

- 5** (1) Gary의 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 있을 것이다.
  - ▶ now를 보고 혼합가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형으로 쓴다.
 (2) Mary는 마치 예술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 ▶ 직설법의 시제와 같은 선상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 (3) 어제 상사 앞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 ▶ 어제의 일에 대한 바람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 (4)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 ▶ 어젯밤의 일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필요하다.
- (5)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다.
  - ▶ it's time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가 온다.
- (6) 해가 없다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할 것이다.
  - ▶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 나와 있고 태양이 없다는 가정을 해야 하므로 'if it were not for' 구문이 나와야 한다.
- (7)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그녀를 승진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 ▶ if절이 과거완료로 쓰였으므로 주절도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 (8) Max는 마치 자신이 상사인 것처럼 행동했다.
  - ▶ as if는 같은 선상의 시제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는 경우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

- 6** (1) ▶ 가정법 미래 중 불가능한 가정이므로 If절 안에 'were to'를 쓴다.  
 (2) ▶ 혼합가정의 형태로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쓴다.

## Actual Test

p.72

**1** ② **2** ① **3** ③ **4** ④

**5** If I were old enough, I could get a driver's license.

**6** ② **7** ⑤ **8** were → were to

**9** ⑤ **10** If it had not been for your best management

**11** ③ **12** ② **13** ④ **14** ④ **15** if you eat too much sugar

- 1** 고객이 없다면 우리 회사는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
  - ▶ 주절이 가정법 과거이므로 '고객이 없다면'에 해당하는 가정법 표현을 찾는다. ①번은 If it were not for가 되어야 맞다. 이것의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표현이 ②번이다.**2** ▶ 영작할 문장은 현재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현재이다.
 **3** 비가 많이 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즐겼을 것이다.
  - ▶ 뒤의 절에 가정법 과거완료형이 나와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완로의 if절을 찾는다.**4** ① 네가 조금만 일찍 전화했다면 내가 너의 전화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적절한 전략이 없었다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③ 내가 아팠다면 약속을 취소했을 것이다.
  - ④ 너의 제안이 이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좋을 텐데.
  - ⑤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면 그는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 ① 가정법 과거완료에 맞는 주절을 써야 한다. (wouldn't

miss→wouldn't have missed) ② 문맥상 if절이 부정문이 되어야 한다. (Had it been for→Had it not been for) ③ 뒤의 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if절을 had p.p.를 써서 나타낸다. (If I get sick→If I had gotten sick) ④ 옳은 문장 ⑤ now를 보고 혼합가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뒤의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고친다. (might have been→might be)

- 5 내가 나이가 충분하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을 텐데.  
▶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법 과거로 볼 수 있으므로 앞의 am을 were로 고친다.
- 6 내게 대안이 있다면 난 그걸 밀고 나갈 것이다.  
▶ 앞의 if절의 동사가 과거이므로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다.
- 7 • 바로 시작했다면 너는 제시간에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너는 오늘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 ①은 if가 생략된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고 ②는 if가 생략된 혼합가정 문장이므로 앞에는 had가 대신 나가야 한다.
- 8 달이 태양과 충돌한다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 거의 불가능한 가정법 미래이므로 if절에 were to를 쓴다.
- 9 ① 내가 한 번 더 실패한다면 나는 결코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②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긴 실직에 직면할 것이다.  
③ 나는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다.  
④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⑤ 내 여동생이 테니스 선수권에서 우승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 ⑤ win은 '선수권에서 우승했다면'이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바람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가정법 과거완료인 'had won'을 써야 한다.
- 10 당신의 최고의 경영이 없었다면 올해의 목표는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 But for는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에서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

### [11-13]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쾌락 이외에 다른 이유로 초콜릿을 먹지도 모른다. 적은 양의 초콜릿을 먹으면 잠재적인 건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다크 초콜릿에서 발견된 특정 물질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특정 종류의 초콜릿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뇌 활동의 둔화를 예방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 이외의 다른 초콜릿의 혜택을 알아내기 위해 한 캔디 회사는 매년 초콜릿에서 발견되는 여러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다. 초콜릿이 완벽한 식품으로 판명이 된다면 초콜릿 팬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진탕 먹어대면서도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언젠가 우리는 작은 초콜릿 조각 말고는 다른 음식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

- 11 ▶ 현재 사실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현재를 쓰기 때문에 현재형 eat을 쓴다.
- 12 ▶ 가정법 과거이므로 'would+동사원형'을 쓴다.
- 13 ▶ 현재 캔디 회사가 연구에 돈을 쓰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 가정으로는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한다.
- 14 그의 이야기는 진짜인 것처럼 들렸다.  
▶ 뒤에 가정법의 동사 were가 나왔고 문맥상 '~처럼'이라는 표현이

필요하므로 as if가 적절하다.

- 15 너무 많은 당분을 먹지 마라; 안 그러면 당뇨에 걸릴지도 모른다.  
▶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이므로 반대의 가정을 해야 한다.

## Chapter 05



## 관계사

### Unit 1 관계대명사

p.77

#### Check Up

- 1 ④
- 2 (1) which→that (2) whom→who (3) the thing what→that (4) whom→whose (5) which→who
- 3 (1) who (2) whose (3) that (4) that (5) what
- 4 (1) who get laid off can find new jobs (2) supervisor didn't approve of what she wanted to do (3) might be the biggest animals that have ever lived
- 1 ① 나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산다.  
② 내 집안 일을 도와주는 여자가 매주 일요일에 온다.  
③ 기술자는 너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할 것이다.  
④ 내가 참가한 워크샵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⑤ Sandra는 그녀의 방 천장에 필요한 전구를 샀다.  
▶ ①, ②, ③, ⑤번 문장들은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오므로 관계대명사 주격이나 ④번의 that은 뒤에 I라는 주어와 take part in의 목적어가 workshop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 2 (1)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다.  
▶ 선행사에 최상급이 쓰였으므로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  
(2) 개회사를 한 Cooper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 뒤에 gave라는 동사가 나오므로 관계대명사 주격인 who를 쓴다.  
(3)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the thing을 뺀다.  
(4)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두 명의 대학 졸업생을 채용했다.  
▶ 앞에 선행사로 사람이 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므로 관계대명사 소유격인 whose가 쓰인다.  
(5) 그는 가끔 피자를 배달하러 오는 남자다.  
▶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who를 쓴다.
- 3 (1) 나는 내 첫 직장에서 상사였던 남자를 만났다.  
▶ 뒤에 동사가 나오므로 주격을 쓴다.  
(2) 나는 쌍둥이 여동생이 Jamie인 Greg를 안다.  
▶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명사가 나오므로 소유격으로

whose를 쓴다.

- (3) 그녀는 내가 요청한 서류들을 내게 보낼 것이다.
    - ▶ 앞에 선행사가 나와 있으므로 that을 쓴다.
  - (4) 어젯밤에 나는 여태까지 만난 가장 멋진 여자와 저녁식사를 했다.
    - ▶ 선행사가 사람이지만 최상급이 쓰였으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 (5)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 ▶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do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 4** (1) ▶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 who로 연결하며 시제는 현재를 쓴다.
- (2) ▶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쓴다.
- (3) ▶ 선행사에 최상급이 쓰이므로 관계대명사 that으로 연결한다.

## Unit 2 관계부사

p.79

### Check Up

- 1** (1) in (2) when (3) on (4) how (5) where  
**2** (1) where (2) why/that (3) the way (4) when/that (5) that  
**3** ② **4** (1) for which (2) in which (3) on which

- 1** (1) 나는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병원에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 ▶ 병원은 장소를 나타내므로 알맞은 전치사는 in이다.
- (2) 봄은 대부분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 ▶ 계절은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n을 쓴다.
- (3) 일요일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다.
  - ▶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이 쓰인다.
- (4)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래?
  - ▶ the way how는 함께 쓸 수 없고, the way 혹은 how를 써야 한다.
- (5) 회사는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다.
  - ▶ 부지는 장소이므로 where를 쓴다.
- 2** (1) 우리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식당에 아직도 간다.
  - ▶ 식당은 장소이므로 where를 쓴다.
- (2) Sam과 Sally가 헤어진 이유를 아니?
  - ▶ 선행사가 the reason인 경우 관계부사 why나 that을 쓴다.
- (3) 너무 많은 일은 종종 우리의 사고방식을 흐트러뜨린다.
  - ▶ 방식을 나타낼 때는 the way 혹은 how를 쓴다.
- (4) 3월은 한국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는 달이다.
  - ▶ month는 시간의 선행사이므로 when을 쓴다.
- (5)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쓴다.
  - ▶ the way how는 쓰지 못하지만 관계부사로 쓰이는 that을 써서 the way that으로 바꿔 쓸 수는 있다.

- 3** ① 나는 그녀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떠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② 나는 그가 교복을 입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③ 일요일은 내가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유일한 날이다.  
 ④ 그들이 오기로 한 시간을 내게 상기시켜 주세요.  
 ⑤ 경찰은 화재가 시작된 곳을 찾아냈다.  
 ▶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 4** (1) 일부 사람들은 소행성이 공룡이 사라진 이유라고 주장한다.
  - ▶ 이유의 전치사는 for이므로 why는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 (2) 엄마는 내게 구구단 표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 ▶ the way how는 쓸 수 없으나 how를 방법의 전치사인 in을 써서 in which로 바꿔 쓰는 경우, the way in which로 쓸 수 있다.
- (3) Julie는 앓을 벤치를 찾고 있다.
  - ▶ 벤치 위에 앉으므로 전치사 on을 쓴다.

## Unit 3 주의해야 할 관계사의 용법

p.81

### Check Up

- 1** (1) in where → where 또는 in which (2) what → that 또는 which (3) that → who was (4) which after → after which (5) is affecting → that is affecting 또는 which is affecting 또는 is 생략
- 2** (1) what (2) what (3) what (4) which (5) who
- 3** (1) what (2) that was
- 4** (1) 생략 못함 (2) that (3) which was (4) whom
- 1** (1)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다.
  - ▶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므로 in which 또는 관계부사 where로 고친다.
- (2) Tony가 제출한 보고서는 가장 잘했다고 여겨졌다.
  - ▶ 선행사가 있으므로 which 혹은 that을 쓴다.
- (3)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관리자는 모든 회의를 취소해야만 했다.
  - ▶ 앞에 comma가 있는 경우는 that을 쓰지 않으며 뒤에 suffering이라는 현재진행분사가 나와 있으므로 who와 be동사인 was를 함께 쓴다.
- (4) Pam은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후에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었다.
  - ▶ 회의 이후에 제공되었으므로 after which가 되어야 한다.
- (5)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곧 나아질 것 같지 않다.
  - ▶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이므로 연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사를 global economic depression으로 하여 is 앞에 관계사 that 혹은 which를 쓴다.
- 2** (1) Kim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왼쪽 다리는 감이 없었다.
  - ▶ '설상가상'이라는 뜻의 관용 표현인 'what is worse'를 쓴다.
- (2) Jennifer는 소위 말괄량이다.



▶ '이름바, 소위'라는 표현으로 'what they call', 'what we call' 혹은 'what is called'를 쓴다.

- (3)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 많이 다르다.  
▶ 'what+사람 주어+be동사는 사람의 상태나 인격을 나타낸다.
- (4) 많은 지하철역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노약자들을 돕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 선행사가 있고 앞에 comma로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which를 쓴다.
- (5) 헬리오텐은 천문학자 Edmond Halley의 이름을 땄는데, 그는 1758년 혜성의 귀환을 정확히 예상했다.  
▶ comma를 써서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that을 쓸 수 없다.

- 3** (1) 우리는 열심히 일한 후에 번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앞에 선행사가 없고 earn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 (2)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실험을 끝냈다.  
▶ assigned라는 과거분사가 나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와 be 동사를 함께 쓴다.
- 4** (1) 경기에서 우승한 팀의 코치는 계약을 갱신했다.  
▶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 (2) 지난주에 우리가 고친 오래된 기계는 작동이 잘 된다.  
▶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 (3) Andy는 회사가 개최한 송년회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 관계대명사 주격과 be동사는 함께 생략할 수 있다.
- (4) 내가 로비에서 본 여자는 Jack의 상관이다.  
▶ whom이 목적격이므로 생략 가능하다.

## Practice Test

p.82

- 1** (1) that (2) how (3) who is (4) when (5) which  
**2** ④ **3** ① **4** ① **5** ① **6** ② **7** ④ **8** ③, ⑤ **9** ⑤  
**10** ①

- 1** (1) 우리는 직면한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that을 쓴다.
- (2) 나는 아직도 새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 작동 방식을 언급하고 있으며 주어나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관계부사 how를 쓴다.
- (3)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뒤에 interested라는 형용사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주격과 be동사를 함께 쓴다.
- (4) 토요일은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이다.  
▶ 앞에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when을 쓴다.

- (5) 과학자들은 많은 만성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 전치사가 앞에 있는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that을 쓸 수 없다.

- 2** ① 내가 구입하고 싶은 소파의 가격은 예상보다 비쌌다.  
② 작년에 지어진 다리는 홍수로 파괴되었다.  
③ 내가 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잊을 수 없다.  
④ 교차로에서 나를 세운 경찰관은 내게 과속 딱지를 주었다.  
⑤ 우리가 여행을 위해 세운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 생략 가능한 대상: ①, ⑤ 관계대명사 목적격, ② 관계대명사 주격+be동사, ③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 3** 지난 달에 제시된 계획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 뒤에 과거분사 presented가 있으므로 be동사와 함께 쓴다.
- 4** 그가 돈을 가져간 이유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 이유가 선행사일 때 관계부사는 why이다.
- 5** 그 구조요원이 한 일은 꽤 영웅적이었다.  
▶ 앞에 선행사가 없고 did의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 6** 네가 우리와 함께 가도록 Nancy를 설득한 방법은 놀라웠다.  
▶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으며 how 대신 in which나 that을 쓴다.
- 7** 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수의 체계는 10진법이다.  
② 도서관은 네가 읽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장소이다.  
③ 내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요점은 그룹으로 일하는 것에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④ Stonehenge는 영국의 남부에 위치한 거대한 구조물이다.  
⑤ 그의 소설은 뮤지컬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  
▶ ①, ⑤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 없고, ② 장소의 관계부사는 where이며, ③ 선행사에 서수가 쓰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 8** ▶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으며 the way나 how를 써야 한다. 또는 the way in which나 the way that으로 쓸 수도 있다.
- 9** ① 그렇게 역겨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니?  
② 그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은 매우 신속했다.  
③ 마늘은 고대 이집트에서 약으로 쓰였고, 거기서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  
④ 경쟁이란 보상이 차등있게 주어지는 상황이다.  
⑤ Hank는 Chicago에 사는 12명의 손주들이 있다. Hank는 12명의 손주들이 있는데 그들은 Chicago에 산다.  
▶ ⑤번의 첫 문장은 Chicago에 사는 손주만 12명이고 다른 손주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전체 12명의 손주가 있는데 그들이 모두 Chicago에 산다는 내용이다.
- 10** ① 샌들 한 켤레를 사는 고객은 또 한 켤레를 반 값에 살 수 있다.  
② Jane은 기차에 탔는데 그 기차는 그녀의 고향으로 간다.  
③ 모든 직원들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지를 읽어야 한다.  
④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최근에 잃은 일부 사람들을 도왔다.  
⑤ 자전거 주차는 표지판이 게시된 곳에만 허용된다.  
▶ ②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을 쓰지 못하며, ③ 관계대명사 주격은 생략하지 못한다. (notice is posted→notice (which is)



posted) ④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whose이고, (of which→whose) ⑤ 관계부사는 전치사와 쓰지 않는다.

## Grammar in Reading

p.84

1 ① 2 ⑤

3 I'll recommend this website you can refer to for some further help writing your report.

4 what he wants 5 ③ 6 ② 7 ③

8 and then/but then

1 **해석** |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많은 작품에서 연기 경력을 시작해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해 왔다. 그러므로 그녀는 카메라를 절대 피하지 않고 항상 한 사람의 팬을 위해 사인을 해줄 시간을 만든다.

▶ 앞에 선행사로 사람이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므로 관계대명사 주격인 who를 쓴다.

2 **해석** | 우리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회사의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다. 늘어나는 생산비 때문에 순수익이 현 회계연도에 급격히 줄고 있다. 그러니 조금씩 절감하여 내년에 다시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 앞에 선행사에 최상급이 붙어 있으므로 관계대명사는 that만 쓸 수 있다.

3 **해석** | 나는 네가 보고서를 쓰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참조할 수 있는 이 웹사이트를 추천하려고 한다. 거기서 너는 너의 사례를 명확히 증명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와 차트를 찾을 수 있다. 초안 작성이 끝나면 내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라.

▶ which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지만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전치사의 목적격의 경우,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생략할 수 없으므로 to를 뒤로 보내고 which를 생략한다.

4 **해석** | 그는 항상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부분의 그의 동료들은 그가 전형적인 야심이, 즉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 사무실에서 그는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보통 제일 늦게 퇴근한다.

▶ '~하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표현한다.

5 **해석** | Ken은 소위 자수성가한 남자이다. 그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근면함과 인내로 대학 전액 장학금을 타냈다. 졸업 후, 그는 회사 내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단 몇 년 만에 작은 재산을 모았다.

▶ 생소한 표현을 나타내거나 범주화시킬 때 우리는 '소위, 이른바'라는 의미의 'what we call'이라는 관용 표현을 쓴다.

6 **해석** |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호텔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공사 프로젝트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바로 그와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모르시면 그의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전화나 이메일로 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 관계부사는 '전치사+관계대명사'로 바뀌 쓸 수 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관계사는 which이고 전치사는 선행사에 맞게

선택한다. 호텔에 머무른다고 할 경우, in 또는 at을 쓸 수 있다.

7 **해석** | 이것이 바로 Cheng이 그의 폐암을 극복한 방법이다. 수년 간 골초였지만 그는 진단을 받은 즉시 마침내 담배를 끊어버렸다. 게다가 그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했고 여러 약을 처방받았다. 치료는 성공적 이었고 그는 이제 암에서 벗어났다.

▶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8 **해석** | 내가 나가려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기다리는 전화가 없었지만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어쨌든 받기로 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상사가 나를 사무실에 나오라고 한다는 내 동료의 전화였기 때문이었다.

▶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부사'로 고쳐 쓸 수 있다. 이 경우, 의미상 and then과 but then이 모두 가능하다.

## Grammar in Writing

p.86

1 (1) Anybody who attends the conference is required to show an identification card. (2) The information that you sent me was not very useful. (3) The tourists traveled to the Grand Canyon whose scenery was breathtaking. (4) We went to the Tiki-Wiki Lounge, where we enjoyed traditional Hawaiian dancing and music. (5) A comprehensive exam is what students have to take in the final quarter of their studies.

2 (1) Islands are geographical formations completely surrounded by water. (2) The topic I wrote my final paper on was hybrid cars. (3) The survey they conducted last summer is not reliable.

3 (1) I still remember the day on which my first son got married. (2) Sarah taught me the way in which I can increase my math scores. (3) I know the reason for which Julie asked me how my weekend was. (4) They set up the stage on which the band will perform.

4 (1) and there (2) but they (3) and it (4) and then (5) because he

5 (1) which/that (2) who (3) whose (4) where (5) which (6) whom (7) what (8) why (9) when (10) that

1 (1) ▶ anybody를 선행사로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먼저 나와야 한다.

(2) ▶ '내가 내게 보내준이 선행사인 '정보'를 수식하므로 information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먼저 쓴다.

(3) ▶ Grand Canyon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은 Grand Canyon 뒤에 와야 하고 '그곳의'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므로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인 whose로 연결한다.

(4) ▶ Tiki-Wiki Lounge에 가서 그곳에서 즐긴 것이므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을 쓴다.

(5) ▶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 있으므로 선행사 없이 '~하는 것이

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한다.

- 2** (1) 섬들은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학적 형성물이다.  
▶ 관계대명사 주격과 be동사는 함께 생략할 수 있다.
- (2) 내가 학기말 논문으로 쓴 주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였다.  
▶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지만 전치사를 뒤로 보아야 한다.
- (3) 지난 여름에 그들이 행한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  
▶ that은 conduct의 목적격이므로 생략한다.
- 3** (1) 나는 내 첫 아들이 결혼한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 관계부사는 '전치사+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선행사가 낱자이므로 on을 쓴다.
- (2) Sarah는 내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 the way는 how와 함께 쓸 수 없지만 'the way in which'로 쓸 수 있다.
- (3) 나는 Julie가 내 주말이 어땠는지 묻는 이유를 알고 있다.  
▶ why는 항상 'for which'로 고친다.
- (4) 그들은 밴드가 공연할 무대를 준비했다.  
▶ 무대 위에서 공연하므로 on을 쓴다.
- 4** (1) 이교수님은 학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옛 친구들 중 한 명을 만났다.  
▶ 관계대명사→접속사+대명사, 관계부사→접속사+부사, 접속사는 문맥에 맞게 선택한다.
- (2) 쏟아지는 비가 많은 사람들을 꿈쩍 못하게 했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 앞 뒤가 대조되므로 but으로 연결한다.
- (3) 커피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를 각성시키고 더 활동적으로 유지시킨다.  
▶ 순서대로 연결되는 두 절이므로 and로 연결한다.
- (4)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는 연극을 볼 것이다.  
▶ 시간상 자연스러운 연결이므로 and로 연결한다.
- (5)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시장을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시의 예산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이다.  
▶ 뒤의 절은 이유에 해당하므로 because를 쓴다.
- 5** (1) 지구 온난화는 세계의 관심을 받을 만한 심각한 문제이다.  
▶ 선행사가 사물인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 (2) 그 후보는 뇌물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는 that을 쓰지 못한다.
- (3) 내가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충고를 해 주신 선생님은 내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명사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쓴다.
- (4) 우리가 휴가를 간 리조트는 너무 멋졌다.  
▶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고 주어와 나와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 (5) 지난주에, 나는 많은 유명한 현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을 방문했다.  
▶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온다.
- (6) 내가 스웨터를 짜준 사람은 내 사촌이다.  
▶ 사람이 선행사일 때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whom을 쓴다.
- (7) Tim은 내가 그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여겼다.  
▶ 선행사가 없는 경우 관계대명사는 what을 쓴다.
- (8) 나는 그가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이유가 선행사인 경우 관계부사는 why이다.
- (9) 점쟁이는 보통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묻는다.  
▶ 시간이 선행사인 경우 관계부사는 when이다.
- (10) 역사는 목요일에 내가 들어야 하는 첫 수업이다.  
▶ 선행사에 서수가 쓰였으므로 관계대명사는 that만 가능하다.

Actual Test
p.88

**1** ① 2 ② 3 ⑤ 4 ④

**5** Memorizing is not exactly the way(how/the way in which/the way that) I get good grades.

**6** ③ 7 ④ 8 what→that/which

**9** ② 10 ④ 11 ④ 12 ③ 13 ① 14 ⑤ 15 ③

- 1** 기억 상실증은 기억의 일부나 전체가 방해 받거나 잃어버리는 증상이다.  
▶ 뒤의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쓰야 하지만 관계부사 대신 '전치사+관계대명사'를 쓴 보기가 있으므로 그것을 고른다. 또한 그런 병증 안에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전치사는 in을 쓴다.
- 2** ▶ position을 수식하는 절을 관계대명사 주격을 써서 나타낸 것이다.
- 3** 위장은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빈칸에는 use의 목적어가 필요하고 선행사에 최상급이 쓰여 있으므로 that을 쓴다.
- 4** ① 전통적인 학교에 신뢰가 없는 부모들은 홈스쿨링에 의지한다.  
② 그를 리더가 말아야 하는 많은 역할이 있다.  
③ 초신성은 큰 폭발을 하는 별이다.  
④ 나의 5살짜리 딸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⑤ 내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필요한 티켓은 그 패키지에 포함된다.  
▶ ① whom→who, ② whose→which/that, ③ what→that/which, ⑤ in which→which/that
- 5** 암기가 정확히 내가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은 아니다.  
▶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지 못한다.

- 6 어떤 의미에서 그는 소위 진정한 영웅이다.  
▶ '소위, 이른바'라는 표현이 필요하다.
- 7 • Elaine은 내가 사랑에 빠진 첫 여자이다.  
• 우리가 그녀를 내버려둬야 하는 이유를 내가 말해 줄게.  
▶ that은 선행사에 최상급이나 서수가 쓰였을 때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the reason why에서 why 대신 쓸 수도 있다.
- 8 오전 7시에 시작한 직원 회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 선행사가 있으므로 what을 which 또는 that으로 고친다.
- 9 ① 이곳이 내가 우산을 잃어버린 역이다.  
② 우리는 정상에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을 안다.  
③ 나는 이 블라우스가 만들어진 천을 알고 싶다.  
④ 이 작은 장치가 내가 사고 싶은 것이다.  
⑤ 지금이 세계가 집시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순간이다.  
▶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whose를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of which로 쓰는 경우는 명사에 the를 꼭 붙여야 한다.
- 10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게다가 난방도 작동하지 않았다.  
▶ 앞뒤의 문장이 좋지 않은 일로 이어지므로 what is worse 즉, '더욱 안 좋은 것은'이 정답이다.

[11-13]

나는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를 선호한다. 관료주의가 적은 소규모 회사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더 좋은 것은 그들은 동료들 사이에 더 나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조직 내에 경쟁이 덜하다는 것이다. 협력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일이 종종 더 빠르게 성취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다. 건강한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이 내게는 대단히 중요한데, 부모로서 전념하는 것 이외에도 내게는 근무 이외의 많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며 휴가 수당을 여유롭게 제공하는 직장을 선호한다.

- 11 ▶ 선행사가 장소이므로 where를 쓴다.
- 12 ▶ 앞뒤가 장점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더 좋은 것은'에 해당하는 표현이 정답이다.
- 13 ▶ 사물이 선행사인 관계대명사의 주격을 고르는 문제이다.
- 14 • Cindy는 삼촌이 있는데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 한 곳에서 일한다.  
• 그들이 지난 주에 다투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다.  
▶ 두 문장 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 선행사가 uncle이므로 who를 써야 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전치사 다음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 15 ① 오늘날 보통으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우연히 개발되었다.  
②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일 것이다.  
③ 10월은 우리가 수익이 나타나도록 기대하는 달이다.  
④ 나는 네가 관심을 가질지도 모를 소식을 가지고 있다.  
⑤ 올해 초에 새로 개발된 진통제는 효과적으로 통증을 덜어준다.  
▶ ③ that은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없다. in that은 in which가 되어야 한다.

Chapter 06



대명사

Unit 1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p.93

Check Up

1 ⑤ 2 ⑤

3 (1) such (2) those (3) our (4) their (5) It (6) one

4 (1) closed a deal with his new client (2) really have to leave now/afraid so (3) One should not take advantage of the weak. (4)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position should send a resume by tomorrow.

- 1 ① Tom은 그녀를 위해 상자들을 위층으로 올려다 주었다.  
② TV 옆에 있는 침대는 그의 것이다.  
③ 그 가수의 팬은 가수에게 그녀의 T셔츠를 싸인 받고 기분이 들떠 있었다.  
④ 북반구의 대부분이 8월까지 덥다  
⑤ Jake는 안내 직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  
▶ ⑤번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야 하므로 목적격 him이 아닌 소유격 his를 쓴다.
- 2 ① 이 추한 신발을 정말 신을 거야?  
② 이 화학 물질은 동물 사료용으로만 허가받은 것이었다.  
③ 저 방은 프로그램 책자로 가득하다.  
④ 이번 특별 할인은 5월 31일에 끝난다.  
⑤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의 것보다 더 나은 품질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다른 지시사는 뒤에 명사를 붙여 지시형용사로 쓰였으나 ⑤번의 that은 단독으로 쓰여 지시대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3 (1) 그 미술관은 마네와 피카소 같은 현대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한다.  
▶ 예를 나타내는 표현인 'such as'가 필요하다.  
(2) 그 지침서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을 권하지 않는다.  
▶ 수식을 받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타낼 때 those를 쓴다.  
(3) 우리는 고객이 필요로 하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 명사가 나와 있으므로 그를 수식하는 소유격이 필요하다.  
(4) 학생들은 그들의 담임선생님에게 조사서를 반납해야 한다.  
▶ 역시 뒤에 전치사 to의 목적격으로 명사가 나와 있으므로 그를 수식하는 소유격을 쓴다.  
(5) 너의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 가주어를 써야 하는 자리이므로 it을 쓴다.  
(6) 누구 남은 우산 있는 사람 있니? - 응, 나 한 개 있어.  
▶ 막연한 한 개의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는 one이다.
- 4 (1) ▶ 소유격을 쓰고 시제를 맞추어 동사를 쓴다.  
(2) ▶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할 때는 afraid를 써서 'I'm afraid so.(그래야 할 것 같아.)'라고 대답한다.

- (3) ▶ 일반 사람을 주어로 쓰는 경우 one을 쓸 수 있다. the weak 은 복수보통명사로 '약한 사람들'의 뜻이다.
- (4) ▶ 수식을 받는 일반 사람들은 those로 나타낸다.

## Unit 2 재귀대명사와 소유대명사

p.95

### Check Up

- 1 (1) of itself (2) herself (3) himself (4) themselves (5) yourself (6) herself
- 2 (1) yourself (2) itself (3) himself (4) ourselves (5) myself
- 3 ④
- 4 (1) Ian is an old friend of mine. (2) This cap of hers is not really her style. (3) Some dogs of his were once stray dogs. (4) They didn't want any paintings of mine.
- 1 (1) 컴퓨터 바이러스는 저절로 복제를 해서 수천 대의 컴퓨터에 확산된다.  
▶ '저절로'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은 'of itself'이다.
- (2) 그 여주인은 우아한 자세로 자신을 소개했다.  
▶ present의 목적어가 hostess인 주어이므로 재귀대명사를 쓴다.
- (3) David는 그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 pride는 'pride oneself on'이라는 표현으로 쓰여 '~을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4) 나는 너의 아이들이 식당에서 행실을 바로 하기를 바란다.  
▶ behave 다음에 재귀대명사를 써서 '행실을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5) 내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편히 있어.  
▶ 'make yourself at home'은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는 의미이다.
- (6) Monica는 외로울 때면 자신과 이야기한다.  
▶ 전치사 to 다음에 목적어로 재귀대명사가 오는 경우는 주어 가 다시 나오는 경우이다.
- 2 (1)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  
▶ '네가 직접'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재귀대명사 yourself를 쓴다.
- (2) Angela는 친절 그 자체이다.  
▶ '~ 그 자체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itself를 덧붙인다.
- (3) Sonya의 5살 아들은 아직도 혼자 밥을 못 먹는다.  
▶ feed는 타동사이므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하고, 아들이 자신을 먹인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재귀대명사를 쓴다.
- (4) 우리는 몇몇 가능한 안 좋은 소식에 대비해야 한다.  
▶ prepare는 타동사로 '~을 대비시키다'의 의미이므로 재귀대명사를 목적어로 쓴다.
- (5) 나는 내 자신을 대단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 의미상 myself가 가장 적절하다. think of myself as ~ 나

자신을 ~라고 생각하다

- 3 ① 나는 들판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② 깨진 유리에 베이지 않게 조심해라.  
③ Jean은 엄마가 아파서 최근에 많이 즐겁게 놀지 못했다.  
④ 문제는 노트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  
⑤ Ms Parker는 혼자 고객들의 모든 불평을 처리한다.  
▶ ④ 재귀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재귀용법이나 관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는 생략할 수 없지만,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4 (1) Ian은 내 오랜 친구이다.  
(2) 그녀의 이 모자는 정말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다.  
(3) 그의 개들 중 일부는 한때 주인 없는 개였다.  
(4) 그들은 내 그림 중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 a, an, some, any, this, that ... 등과 함께 소유격을 쓸 수 없고, 이 경우는 이중소유격을 써야 한다.

## Unit 3 부정대명사

p.97

### Check Up

- 1 (1) other→another (2) are→is (3) other→others (4) the other→others (5) another→other
- 2 (1) the other (2) Both (3) The others (4) None
- 3 (1) Each (2) another (3) others (4) the other
- 4 (1) Knowing is one thing and teaching is another. (2) Most children like to play with others.
- 1 (1) 그 은행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다.  
▶ 계좌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막연한 하나의 다른 계좌라고 할 경우 another를 써야 한다.
- (2) 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 everything은 단수로 취급한다.
- (3) 일부 모델은 세일을 하지만 다른 것들은 정가에 팔린다.  
▶ 정해지지 않은 일부와 다른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는 'some ~ others ...'를 쓴다.
- (4)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에서 먹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 막연한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는 경우는 others를 쓴다.
- (5) 정기간행물은 다른 잡지와 함께 팔여 있다.  
▶ magazines가 복수로 쓰였으므로 other를 쓴다.
- 2 (1) 왼쪽 페달은 멈추게 하고 나머지 페달은 더 빨리 가게 한다.  
▶ 단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another 혹은 the other를 써야 한다.
- (2) 두 선수 모두 레드 카드를 받아서 벤치를 지켜야 했다.  
▶ 문맥상 레드 카드를 받아야 벤치에 앉아 있게 되므로 둘 다 레드 카드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려면 both를 써야 한다.

- (3)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나만 뒤에 남았다.  
▶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the others**를 쓴다.
- (4) 내 예전 옷 중에 아무것도 더 이상 맞지 않는다.  
▶ 전에 입던 옷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전체가 두 개라기 보다는 여러 개라고 봐야 한다.
- 3** (1) 각 부서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식을 받는 명사가 단수이고 문맥상 모든 부서가 제출한다는 의미이므로 **each**를 쓴다.
- (2) Sam Pamberton은 다른 부서로 전근되었다.  
▶ 막연한 다른 부서이므로 **another**를 쓴다.
- (3) 가장 최근의 모델은 매진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아직 여분이 있다.  
▶ 다른 모델들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others**를 쓴다.
- (4) 그 두 개의 계획 중에 하나는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나머지 하나는 가능한 것 같다.  
▶ 전체가 두 개이므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정해진다.
- 4** (1) ▶ 'A와 B는 별개이다.'라는 표현은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를 쓴다.
- (2) ▶ 막연한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는 **others**이다.

## Practice Test

p.98

**1** (1) It (2) every (3) Those (4) other **2** ⑤ **3** ① **4** ①

**5** ② **6** ③ **7** ② **8** ③ **9** ①

**10** (1) Either(Neither) (2) another/the other (3) All (4) that (5) by himself (6) either (7) others

- 1** (1) 사회는 가난과 굶주림의 순환을 깨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 **that**절을 진주어로 하는 주어어 **it**을 쓴다.
- (2) 우리는 모든 젊은이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만들고 싶다.  
▶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나와 있으므로 **every**를 쓴다.
- (3)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저 운전자들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 지시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와 수를 같이 통일한다.
- (4) Hanoi는 교통 체증과 홍수, 그리고 다른 여러 문제들에 의해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다.  
▶ **problems**가 복수로 나와 있으므로 **other**를 쓴다.
- 2** ① Cathy는 거울에 자신을 비쳐 보았다.  
② 그 피아니스트는 클럽 손님들이 도착할 때까지 혼자 연습했다.  
③ AI의 채소가게 야채들은 경쟁 가게의 야채들보다 더 신선하다.  
④ 나는 리포터 본인으로부터 직접 그 소식을 들었다.  
⑤ 나는 내 오래된 팩스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싶다.  
▶ ⑤ 또 다른 팩스기를 언급해야 하므로 **another**를 써야 한다.

- 3** 어떤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에 투자한다.  
▶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some ~ others ...'를 쓴다.
- 4** 그녀의 책은 날개 돌친 듯 팔려서 6쇄를 찍는 중이다.  
▶ 그 책의 6쇄를 찍는 것이므로 **its**를 쓴다.
- 5**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쪽에 다른 것도 있다.  
▶ 다른 것 하나를 나타내려면 **another**를, 다른 것 여러 개를 나타내려면 **others**를 써야 한다.
- 6** ① 나는 일본어를 하지 못했다.  
② 1등석 티켓을 소지하신 분들은 탑승을 위해 지금 5번 게이트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③ 내 학교 숙제는 너의 학교 숙제와 다르다.  
④ Ron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⑤ 날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 ① **communicate**의 의미를 재귀대명사로 나타낼 때 'make oneself understood'로 쓴다. ② 수식을 받는 일반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those'이다. ④ **himself**는 **that**절의 주어가 되어야 하므로 **he**로 고치고, ⑤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는 **it**을 쓴다.
- 7** ▶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each**가 있고 **each** 바로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는 단수명사를 써야 하지만 **each of**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쓴다. 그러나 **each of**를 쓰는 경우에도 주어는 여전히 **each**가 되므로 동사는 단수 형태를 쓴다.
- 8** ① 이 블라우스가 또 다른 색으로 있나요?  
② 이 그림 중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③ 큰 돈을 버는 것과 행복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④ 나는 Einstein이나 Newton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⑤ 너는 정말 내일 여행을 취소해야 하니? -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 ① 또 다른 색깔을 의미할 때 **color**가 단수이므로 **another**를 쓰고, ② 부정의 부사 **not**이 쓰였으므로 **Neither**는 **Either**로 바꿔 쓰며, ④ 예를 드는 경우는 'such as'를 쓰고, 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라는 의미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동의하는 표현은 **I'm afraid so.**이다.
- 9** ① 그 문은 저절로 잠겼다.  
② 내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비가 퍼붓고 있었다.  
③ 이 장난감은 얼룩이 묻었어. 다른 것을 보여줄래요?  
④ 그들 둘 다 좋은 직장 and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  
⑤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미가 있다.  
▶ ② 날씨를 나타내는 주어는 비인칭 **it**이고, ③ 가게에서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는 정해지지 않은 'another'를 쓰고, ④ **Both of** 다음에는 목적격 **them**을 쓰며, ⑤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은 **others**이다.
- 10** (1) 그들 둘 다 Jack이 제안한 직장을 고려하고 있다(있지 않다).  
▶ 주어로 쓸 수 있는 대명사 중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은 **either**와 **neither**뿐이다.
- (2) Kay는 고양이 3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3살이고, 또 한 마리는 1살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일주일 되었다.  
▶ 전체가 세 개이므로 **another**와 **the other**를 차례로 쓴다.
- (3) 내 모든 스트레스가 하와이로의 여행과 함께 사라졌다.  
▶ **all**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모두 쓰일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와 쓰이는 경우는 복수로, 셀 수 없는 명사와 쓰이는 경우는 단수로 받는다.

- (4) Jane의 점수는 그녀의 쌍둥이 동생의 점수보다 더 좋다.  
▶ 점수는 점수끼리 비교해야 하며, 같은 문장 내의 명사를 다시 받는 경우는 **that**이나 **those**를 쓴다.
- (5) Jason은 프로젝트를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 '혼자서'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은 '**by oneself**'이다.
- (6) 디저트로 커피나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 뒤에 나온 **or**를 보고 상관접속사로 함께 쓰이는 **either**를 선택한다.
- (7) 나는 미래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  
▶ 막연한 다른 사람들을 지칭할 때 **others**를 쓴다.

## Grammar in Reading

p.100

- 1 ① 2 ② 3 breakfast for the old by herself  
4 some albums of yours 5 ① 6 ② 7 ③  
8 a good friend of mine

- 1 **해석** |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아마 쉽게 약속을 정해 놓고 당일이 되면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서둘러 취소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다음 번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 막연한 다른 사람을 나타내려면 **others**를 쓰고, 일반 주어가 필요하되 뒤에 **one's**가 나와 있으므로 **one**을 쓴다.
- 2 **해석** | 경제침체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 등의 강대국들이 해결책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이는 이들 특정 강대국들이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그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큰 여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 강대국의 예를 들어야 하므로 **such as**를 쓴다.
- 3 **해석** | 매주 토요일 Tina는 노인들을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한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처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양로원의 노인들은 젊은 그녀가 와주는 데 고마워하고, 그녀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는 많은 흥미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즐긴다.  
▶ **by oneself** 혼자서
- 4 **해석** | 지난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나는 네가 남기고 간 앨범의 일부를 훑어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함께 대학을 다니던 시절 주로 네가 찍은 사진들이었다. 우리가 함께 번지점프를 하러 갔던 때를 기억하니? 우리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다!  
▶ **some**과 소유격은 붙여 쓸 수 없으므로 이중소유격을 쓴다.
- 5 **해석** | 우리가 꽤 서둘렀던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나오기 전에 가스렌지를 끄는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 네가 정 그렇게 걱정이 되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 분명 가스렌지는 꺼져 있고 집은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직접, 스스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구는 '**for oneself**'이다.

- 6 **해석** | 형법 체계에서 이상적인 것 중 하나가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히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귀하지만 어려운 목표인데 왜냐하면 피고인들은 종종 소문이나 편견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증거여야 한다.  
▶ **all**은 셀 수 있는 명사와 나오는 경우, 복수로 써야 하므로 **all people** 혹은 **every person**으로 고친다.
- 7 **해석** | 우리는 뉴욕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에 우리 회사에서 대표를 보내야 한다. 너희 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Jane을 보내야 한다고 추천한다. 그녀가 우리 생산 라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 **unless**가 나와 있으므로 부정을 쓰지 않고 문맥상 '너희 둘 다 반대하지 않으면'의 의미이므로 **either of you**를 쓴다.
- 8 **해석** | Jay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알고 지낸 내 친한 친구이다. 우리 둘은 같은 야구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나중에 같은 대학에 다녔다. 그는 항상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였고, 그래서 나는 내 결혼에 그를 들러리로 선택했다.  
▶ **a**와 소유격을 붙여서 쓸 수 없으므로 이중소유격의 형태로 고친다.

## Grammar in Writing


p.102

- 1 (1) These toxic chemicals should be handled (2) either be (또는 be either) recycled or disposed of (3) some people prefer vanilla, others settle for (4) is almost everyone enjoys eating pizza (5) one is history, and the other is math
- 2 (1) one other→one another 또는 each other  
(2) other→others (3) that→those (4) in herself→by herself  
(5) it's→its (6) other→another
- 3 (1) One (2) Those (3) such as (4) All 또는 Some (5) by myself (6) another (7) the others (8) Both (9) some (10) by herself
- 4 (1) the others (2) others (3) its (4) themselves (5) that (6) so (7) an old friend of mine (8) both (9) myself (10) hers
- 1 (1) ▶ 화학물질이 복수로 나와 있으므로 지시형용사도 **these**로 쓴다.  
(2) ▶ 'A 또는 B'라는 의미로 '**either A or B**'의 표현을 쓴다.  
(3) ▶ 막연한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나타낼 경우 '**some ~ others ...**'를 쓴다.  
(4) ▶ **everyone**은 단수취급한다.  
(5) ▶ 전체가 두 개인 경우 하나는 **one**이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를 쓴다.
- 2 (1)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상대이다.  
▶ '서로'라는 표현은 '**one another**'와 '**each other**'를 쓴다.

- (2) 어떤 새는 날지만 다른 새들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
  - ▶ '어떤 이들은 ..., 다른 이들은 ...'라고 표현할 때 **some, others**를 쓴다.
- (3) 프랑스에서 만든 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것들보다 더 낫다고 보통 여겨진다.
  - ▶ **wines**를 비교하므로 복수형 **those**로 고친다.
- (4) Terry는 그 행사에 동료들 없이 혼자 참석했다.
  - ▶ '혼자'라는 관용 표현은 'by oneself'이다.
- (5)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 '우리 회사'란 의미이므로 소유격인 **its**를 쓴다.
- (6) 이 모델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 ▶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하나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another** 또는 **another one**을 쓴다.

- 3**
- (1)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 ▶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주어로 **one**을 쓸 수 있다.
  - (2) 운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
    - ▶ 수식을 받는 일반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those**이다.
  - (3) Kate는 야구, 축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 관람을 좋아한다.
    - ▶ 예를 들 때는 'such as'를 쓴다.
  - (4) 그 책에 있는 모든(어떤) 충고는 쓸모가 없다.
    - ▶ **advice**는 셀 수 없으므로 **every**는 쓸 수 없고 **all**이나 **some**을 쓴다.
  - (5) 나는 혼자서 엄마를 위해 치즈케익을 만들었다.
    - ▶ **by oneself** 혼자서
  - (6) 물 한 잔 더 마실래?
    - ▶ **glass**는 셀 수 있으므로 **another**를 쓴다.
  - (7) 나는 오빠가 셋 있는데 한 명은 서울에 살고 나머지는 부산에 산다.
    - ▶ 세 명이 전체인데 한 명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정해지므로 **the others**를 쓴다.
  - (8) 내 여동생 둘 다 간호사이다.
    - ▶ 둘이 전체인 경우 **both**나 **either**를 쓰는데 동사를 복수로 쓴 것으로 보아 **both**를 선택한다.
  - (9) 내 친구 중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은 내가 F를 받은 후 나를 무시했다.
    - ▶ **all**은 아니라고 했고 복수로 받고 있으므로 **some**을 쓴다.
  - (10) Angela는 혼자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 '혼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by oneself'를 쓴다.
- 4**
- (1) 나는 네 개의 학교 앨범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를 다 잃어버린 것 같다.
    - ▶ 네 개 중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the others**이다.
  - (2) 어젯밤에 비가 왔지만 어떤 식물들은 젖어 있는 반면 다른 것들은 말라 있었다.
    - ▶ **some**과 함께 쓰는 대명사는 **others**이다.
  - (3) Laura의 새 꽃가게는 곧 문을 열 것이다.
    - ▶ 꽃가게의 문이므로 **its**를 쓴다.

- (4) Sue와 Tony는 자신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 ▶ Sue와 Tony 두 명이므로 **themselves**를 쓴다.
- (5) 집에 있는 나의 새 복사기는 사무실의 것보다 더 작동이 잘된다.
  - ▶ 복사기끼리 비교하고, 단수형이므로 **that**을 쓴다.
- (6) 제시간에 올 수 있겠나? 그럴 것 같아.
  - ▶ 앞의 문장이나 구, 절을 대신 받는 대명사로 **so**를 쓸 수 있다.
- (7) 나는 내 오랜 친구 한 명으로부터 돈을 좀 빌렸다.
  - ▶ **a**와 **my**는 붙여 쓸 수 없으므로 이중소유격을 쓴다.
- (8) 나는 너의 사촌 둘 다 세미나에서 만났다.
  - ▶ **both**는 **of**와 바로 연결하여 쓸 수 있다.
- (9) 나는 직접 너에게 연수 스케줄을 알려줄 것이다.
  - ▶ 직접이라는 강조의 의미를 재귀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 (10) Paul은 그의 프로젝트를 완성했지만 Sally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아직 못 끝냈다.
  - ▶ 앞에 프로젝트라는 명사가 나와 있으므로 소유대명사 **hers**로 받는다.



## Actual Test

p.104

**1** ④ **2** ① **3** ② **4** ③

**5** I don't remember reading any poems of his.

**6** ⑤ **7** ①

**8** another is algebra, and the other is astronomy

**9** ③ **10** ②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④

- 1** 너는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자신이 운이 좋다고 여겨야 한다.
  - ▶ **consider A B**: A를 B로 여기다
- 2** ▶ '어쩔 줄을 모르는'의 의미의 관용구는 'beside oneself'이다.
- 3**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 ▶ 내용상 일반주어가 나오므로 **one**을 쓴다.
- 4** ① Lucy는 우산이 있니?
  - 응, 있어.
  - ② Helen은 그것이 자신의 실수라고 직접 인정했다.
  - ③ 너는 Jessie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 그래야 할 것 같아.
  - ④ 작은 아파트 하나 임대하는 데 얼마니?
  - ⑤ 이 선글라스를 꺼 보세요, 그리고 거울은 이쪽에 있어요.
    - ▶ ① **it**→**one** ② **myself**→**herself** ④ **that**→**it** ⑤ **this**→**these**
- 5** 나는 그의 시 중에 어떤 것도 읽어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 ▶ **his**와 **any**는 함께 붙여 쓸 수 없으므로 이중소유격을 쓴다.
- 6** 그 우리는 저절로 열렸다.
  - ▶ '저절로'라는 의미의 관용구는 'of itself'이다.
- 7** • 내 블라우스 중에 이것은 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것이다.

- 내 사촌 중의 하나는 최근에 아들을 낳았다.
- ▶ 이중 소유격을 써야 하므로 소유대명사를 넣는다.

**8** Jack은 오늘 3개의 수업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 또 다른 하나는 대수, 나머지 하나는 천문학이다.

▶ 전체가 세 개일 때, 한 개를 고르면 두 개가 남아 또 다른 하나를 먼저 골라야 나머지 한 개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another**가 먼저이고 **the other**가 맨 끝이다.

**9** ① 어떤 가게는 복잡했지만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몇 명밖에 없었다.

② 너희들 중 하나가 이번 주 내에 가서 계약을 따내야 한다.

③ 나는 그들 둘 다 싫다. 나는 그들 둘 다 필요 없다.

④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⑤ 불타는 공장에서 모두가 구조되었다.

▶ ③ 부정어가 쓰인 경우는 **neither**가 아닌 **either**를 쓴다. 그래야 전체 부정이 된다.

**10** Jim은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돈을 잃었다.

▶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every**와 **each**는 쓸 수 없고 소유격이 바로 뒤에 나오므로 **some**과 **any**도 쓸 수 없다.

### [11-13]

영국의 어린이들 또한 경기 침체에 타격을 받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주당 용돈이 7년 만에 최저치이다. 아이들의 현재 용돈은 2003년과 비교해 약 30% 더 낮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 이 좋지 않은 경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듯하다. Halifax 은행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나중을 대비해서 여전히 일부의 돈을 저금하고 있다. 그 은행의 저축 상품 책임자인 Umana씨는 "용돈의 액수가 줄어드는데도 아이들이 여전히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한다.

**11** ▶ 아이들의 부모와 용돈을 지칭하므로 **their**를 쓴다.

**12** ▶ 앞에 있는 **allowance**를 다시 받고 뒤에서 **in 2003**이라는 구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that**을 쓴다.

**13** ▶ '스스로'의 의미로 'for oneself'라는 관용구를 쓴다.

**14** ① 그곳은 지금 5백 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의 서식처가 되어 있다.

② 나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기를 원했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③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④ 이번 주 내내 꽤 어둡고 구름 낀 날씨였다.

⑤ 여기 너무 덥고 후텁지근하지 않나요?

▶ ① 대명사 **it** ② 앞의 절을 받는 **it** ③ 가주어 **it** ④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it** ⑤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it**

**15** ① Ms. Anderson은 고객들로부터의 불만을 하나도 직접 처리할 수 없었다.

② 학장은 직접 최종 결정을 했다.

③ 나는 네가 결정하는 데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 선택은 너의 몫이다.

④ Randy는 그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

⑤ 네가 직접 취소한 그 계획은 애당초 네가 세운 계획이다.

▶ 나머지는 채귀대명사의 강조 용법이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하지만 **pride oneself on**은 관용 표현이며, **pride**의 목적으로 **oneself**가 쓰인 것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 Chapter 07



## 특수 구문

### Unit 1 도치

p.109

#### Check Up

1 ⑤ 2 ⑤

3 (1) Neither can I. (2) So do I. (3) So did we. (4) So will I. (5) Neither did we.

4 (1) There are about 30 bridges across (2) There comes my teacher with a rod. (3) Here they come marching down the street. (4) had the alarm gone off than he got up.

1 ①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웃기 시작했다.

② 그는 시험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③ 이 길의 모퉁이에 네가 찾고 있는 은행이 있다.

④ 해가 뜨기 시작하고 나서야 나는 잠에 들었다.

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나도 그래.

▶ ⑤에서 앞 문장에 조동사 **will**이 있으므로 **am**이 아닌 **will**을 그대로 써야 한다.

2 ①~④ 내가 그를 만나자마자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⑤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 ①~④의 표현들은 '~하자마자'의 의미이지만 ⑤는 다른 의미이다.

3 (1) 나는 너에게 완전히 동의한다. - 나도 그래.

▶ 부정문이고 조동사가 쓰였으므로 **neither**와 조동사 **can**을 쓴다.

(2) 나는 아침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싫어한다. - 나도 그래.

▶ 긍정문이고 일반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so**와 **do**를 쓴다.

(3) 그들은 만찬에서 음식을 즐겼다. - 우리도 그랬다.

▶ 긍정문이고 일반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으므로 **so**와 **did**를 쓴다.

(4) Gary는 내일 결석할 거야. - 나도 그럴 거야.

▶ 긍정문이고 조동사가 쓰였으므로 **so**와 조동사 **will**을 쓴다.

(5)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 우리도 그랬다.

▶ 부정문이고 일반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으므로 **neither**와 **did**를 쓴다.

4 (1) ▶ '~가 있다'라는 표현이므로 **there**로 시작하며 도치되는 문장을 쓴다.

(2), (3) ▶ **Here**나 **There**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 주어 명사이면 동사와 도치시키지만 주어 대명사이면 도치시키지 않는다.

(4) ▶ **No sooner**가 앞으로 나와 있으므로 먼저 과거완료 시제를 도치시켜 쓰고, **than** 뒤에는 과거 시제를 바르게 쓴다.

Check Up

- 1 (1) who (2) that (3) who (4) that (5) when
- 2 (1) in the world (2) do (3) in the least (4) far (5) by far
- 3 ④
- 4 (1) I did enjoy myself for the past week in Paris. (2) Why is it that he always leaves me alone? (3) The civil war was by far the bloodiest in the country's history. (4) What in the world(on earth) have you done to your face?

- 1 (1) 내 졸업 논문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Terry였다.
  - ▶ 주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that이나 who를 쓴다.
- (2) 내가 시계를 잃어버린 곳은 거실이었다.
  - ▶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that이나 where를 쓴다.
- (3)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우리 엄마다.
  - ▶ 주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that이나 who를 쓴다.
- (4) 너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한 사람은 Howard였다.
  - ▶ 주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that이나 who를 쓴다.
- (5) 네가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것은 힘들 때이다.
  - ▶ 시간의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that이나 when을 쓴다.
- 2 (1) 도대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러 수 있니?
  - ▶ 의문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in the world이다.
- (2)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고급에 속하는 와인을 생산한다.
  - ▶ 일반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는 do이다.
- (3) 우리 오빠 둘 중 아무도 전혀 용감하지 않다.
  - ▶ 부정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in the least이다.
- (4) Fred는 너보다 훨씬 더 큰 식욕을 가지고 있다.
  - ▶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는 far이다.
- (5) Linda는 축구팀에서 단연 최고의 선수이다.
  - ▶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by far이다.
- 3 ①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전혀 없다.  
 ② 이혼은 많은 나라에서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③ 너는 도대체 매일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니?  
 ④ 우리 고객 서비스센터는 최근에 훨씬 적은 불평을 받고 있다.  
 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 ④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등이 있다.
- 4 (1) 나는 파리에서 지난 주에 재미있게 보냈다.
  - ▶ 강조의 do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뒤에 본동사는 원형으로 쓴다.
- (2) 도대체 왜 그는 나를 항상 혼자 남겨두는 거니?
  - ▶ 의문사 있는 의문문의 강조는 '의문사+is it that'로 시작한다.
- (3) 내전이 그 나라 역사에서 단연코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사태였다.

▶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by far이다.

(4) 도대체 네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니?

▶ 의문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in the world나 on earth이다.

Check Up

- 1 (1) if any→if ever (2) didn't take→didn't (3) is dean→dean (4) if ever→if any (5) was young→young
- 2 (1) do (2) it is (3) that (4) which is (5) use it
- 3 (1) as it were (2) if ever (3) a TV producer (4) if any (5) do you think
- 4 (1) The richer, the greedier. (2) We have little, if any, time to complete our mission.

- 1 (1) David은 읽는다고 해도 좀처럼 신문을 읽지 않는다.
  - ▶ 부정적인 동사의 빈도를 강조하는 삽입구는 if ever이다.
- (2) Kelly는 그녀의 부모님을 돌보았지만, 그녀의 언니는 돌보지 않았다.
  - ▶ 앞에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didn't만 쓰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생략한다.
- (3) 우리 대학의 Ms. Hamilton 학장은 연설을 아주 잘한다.
  - ▶ 명사의 동격은 명사형만 쓴다.
- (4) 이 게임은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 ▶ 수나 양의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삽입구는 if any이다.
- (5) 어렸을 때 그녀는 사촌들과 캠핑을 가곤 했다.
  - ▶ 부사절에서 주어와 be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 있다.
- 2 (1) 나는 사고 기술에서 너보다 더 잘 안다.
  - ▶ do는 앞의 know를 받는 대동사이므로 생략 가능하다.
- (2) 괜찮다면 오늘로 예정된 회의를 연기하고 싶다.
  - ▶ 부사절에서 it is를 생략할 수 있다.
- (3) Angela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바로 그 여자이다.
  - ▶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 (4) 그들은 현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 주격 관계대명사와 be동사는 함께 생략할 수 있다.
- (5) 네가 사용해야 한다면 그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 ▶ 'use it'부분은 앞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 3 (1) Casey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안다.
  - ▶ 뭔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할 때 '소위, 말하자면'의 의미인 'as it were'를 쓴다.
- (2) Danny는 한다고 해도 거의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 ▶ 부정적인 동사의 빈도를 강조하는 삽입구는 'if ever'이다.
- (3) TV 제작자인 Harry는 아주 현명하고 유머러스하다.
  - ▶ 명사형으로 동격을 나타낼 수 있다.

- (4) 있다고 해도 그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거의 없다.  
▶ 수나 양의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삽입구는 if any이다.

- (5) 너는 경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 'do you think'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의문사는 항상 문두에 놓는다.

- 4 (1) ▶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구문은 주어와 동사를 모두 생략하고 이대로 쓸 수 있다.  
(2) ▶ 시간의 양에 대한 부정적인 삽입구인 if any가 들어가야 하며 그 위치는 부정적인 형용사 little 다음이다.

## Practice Test

p.114

- 1 (1) It (2) step (3) in the world (4) much (5) the best  
2 ⑤ 3 ② 4 ① 5 ① 6 ② 7 ④ 8 ① 9 ③ 10 ③  
11 (1) Little (2) So (3) do (4) by far (5) that (6) in the least (7) on earth

- 1 (1) 내 아이디어가 도용당한 것을 깨달은 것은 어젯밤이었다.  
▶ it ~ that 강조구문이다.  
(2) Tina는 휠체어에 탄 어린 소년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 앞에 강조의 do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므로 뒤에 본동사는 원형으로 쓴다.  
(3) 너는 도대체 왜 그가 유죄라고 생각하니?  
▶ 의문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on earth 혹은 in the world이다.  
(4)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 비교급 강조 부사는 much이다. very는 원급을 강조한다.  
(5) 협상은 언쟁을 해결하는 단연 최고의 방법이다.  
▶ by far는 최상급을 수식하는 강조의 부사구이다.
- 2 ① 나는 내 친구의 결혼식에서 내 최고의 드레스를 입었다.  
② 그녀가 직장을 떠나게 만든 것은 내 잘못이었다.  
③ 나는 내 결정에 전혀 의심이 없다.  
④ 도대체 어떻게 Kevin은 무엇을 하든지 실패를 안 하지?  
⑤ 도대체 누가 어젯밤에 너의 아파트를 침입했니?  
▶ 의문문 강조 부사구는 on earth이다.
- 3 나는 내 심장이 그렇게 많이 아플 줄 거의 몰랐다.  
▶ little이라는 부정부사가 앞에 나오므로 도치시킨다.
- 4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자마자 사퇴했다.  
▶ no sooner와 함께 쓰이는 접속사는 than이다.
- 5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갈 수 없었고 나가고 싶지도 않았다.  
▶ 앞에 부정문이 나와 있고 그 부정문에 동조하는 부사와 함께 접속사도 필요하다. 부정문에 동조하는 부사는 nor과 neither가 있지만 그 중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nor이다.
- 6 저기 그가 그의 개와 함께 뛰어 온다.

- ▶ There가 문두에 나와 있을 때 주어가 명사이면 도치가 일어나고 대명사이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 7 ① John은 밤에 운전을 하지 못한다. - 나도 그렇다.  
②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나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③ 그제서야 Ian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해했다.  
④ 나는 그런 강렬한 공연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⑤ 섬의 중앙에 꽃으로 덮인 작은 언덕이 있다.  
▶ ① 조동사가 쓰인 경우 그 조동사를 이용한다. (→Neither can I) ② never는 부정어이므로 도치시킨다. (→Never thought I) ③ only가 붙은 단어, 구 혹은 절이 앞에 나올 때 뒤의 문장은 도치된다. (→did I can) 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앞에 나올 때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is a small hill)

- 8 ▶ '성공하다'는 함께 걸리는 본동사이므로 한 번만 써 주고 '할 수 있다(can)'와 '해야 한다(must)'라는 조동사를 and로 연결하여 함께 써 준다.

- 9 ① 수요가 너무 커서 업체는 물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② 그녀가 앉자마자 문이 팽 닫혔다.  
③ 그녀는 농담을 전혀 하지 않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④ 너의 룸메이트가 그녀의 이구아나와 함께 온다.  
⑤ 내가 방을 나가자마자 땀이 흘렀다.  
▶ ③ nor은 부정접속사이므로 뒤에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nor has she wanted ...)

- 10 ① 내가 언젠가 정치가가 될 것이라고는 거의 깨닫지 못했다.  
② 너는 이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 - Sarah도 그렇다.  
③ 오두막 안에는 오래된 멋진 탁자가 하나 있었다.  
④ 그는 말하자면 강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⑤ 내 아이들은 한다고 해도 집으로 내게 전화하는 적은 거의 없다.  
▶ ① little이 문두에 오면 도치한다. 동사 realized는 did의 영향을 받아 원형이 되어야 한다. ② 부정문의 경우 동의하는 문장의 부사는 neither이다. ④ '말하자면'이라는 표현은 'so to speak'이다. ⑤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빈도에 대한 강조의 삽입구는 'if ever'이다.

- 11 (1) 그녀가 유명한 영화배우였다는 것을 나는 거의 알지 못했다.  
▶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므로 부정부사를 찾는다.  
(2) 너는 연체된 책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너도 내야 한다.  
▶ 긍정에 대해 동의하는 부사는 so이다.  
(3) 네가 정말 가르치기 원한다면 너는 이 연수 세미나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 일반동사를 강조할 경우 do를 쓴다.  
(4) 이것은 그가 여태까지 만든 단연 최악의 영화이다.  
▶ 최상급의 강조 부사는 by far이다.  
(5) 너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너의 태도이다.  
▶ 'it ~ that' 강조구문을 썼다.  
(6) 내 아들 중 아무도 조금도 모험적이지 않다.  
▶ 부정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in the least이다.  
(7) 도대체 왜 너는 포기하기로 결심했니?  
▶ 의문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on earth이다.



1 ② 2 ③ 3 comes your teacher

4 stupid was my sister 5 ② 6 ④ 7 ① 8 ⑤

- 1 **해석** | 겨우 2년 간의 전문 경력을 가지고 나는 내가 최고의 비즈니스 학교에 입학하게 될 줄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지원자들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내가 행운이다. 이제 어려운 관문은 지났으니 이번 9월에 새 아파트를 찾는 것만 걱정하면 된다.  
▶ 경력이 짧는데 입학하게 되었으므로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을 해야 하고 little이라는 부정부사 때문에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 2 **해석** | 나는 Joe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는 무례하고 항상 언쟁에 휘말린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neither는 부사이기 때문에 쓸 수 없고 부정문이므로 so를 쓰지 못한다. 즉, nor를 쓰고 부정어기 때문에 도치시킨 것이 정답이다.
- 3 **해석** | 여기 너희 선생님이 오시니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야 한다. 교과서를 꺼내고 지난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복습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중에서 일부는 수업 시간에 다루겠지만 나머지는 숙제로 남길 것이다.  
▶ Here나 There가 문두에 오는 경우 주어와 명사이면 도치시키고 대명사이면 도치시키지 않는다.
- 4 **해석** | 내 여동생은 너무 바보 같아서 우리 할머니의 고급 도자기를 식기 세척기에 넣을 뻔했다. 그것은 5대 이상 우리 가문의家宝였고, 그래서 만약 훼손되었다면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내셨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다행히 동생을 막을 수 있게 내가 일찍 그곳에 갔다.  
▶ 보어를 강조하기 위한 부사인 so가 앞에 있으므로 보어가 주어 대신 강조되어 앞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사와 주어를 도치시켜야 한다.
- 5 **해석** | 그녀의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녀는 친한 벗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길이었고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서로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뒤에 did she라는 도치구문이 사용되었으므로 앞에는 도치구문을 이끌어내는 부정어나 only등의 부사가 쓰여야 한다. only가 쓰이는 경우 뒤에 부사나 부사구 혹은 부사절과 함께 나와야 한다.
- 6 **해석** | 나는 어제 나를 위한 새 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리점에 갔다. 내가 사고 싶은 모델을 선택하고 나서 가격을 흥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가에서 전혀 협상하려 들지 않았다. 낙담한 나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 내가 흥정하려 했고 그들은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대조의 의미가 내포된 부사가 쓰여야 한다.
- 7 **해석** | 우리 동네에 유명한 커피 전문점 체인이 들어온 후 우리 엄마의 작은 카페는 판매가 급격히 줄었다. 엄마의 많은 전 고객들은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유명한 브랜드를 단순히 선택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

속된다면 엄마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은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 수나 양을 나타내는 부정어 다음에 강조 부사구로 if any를 쓴다.

- 8 **해석** | 그가 선출되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하긴 했지만 도대체 너는 무엇을 기대했니? 그가 그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니? 그는 결국 정치가이고 대부분의 정치가들처럼 그도 종종 열심히 공약을 내놓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지킬 열정은 훨씬 덜하다.  
▶ 의문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로는 'in the world'와 'on earth' 등이 있다.

- 1 (1) did he say that he wanted to be a singer (2) was her business that she bought (3) did I realize that I couldn't go back to (4) We earn much more money than those (5) Who is it that got the promotion this time? (6) won't care in the least about graduation.
- 2 (1) a small supermarket was→was a small supermarket (2) this experience will→will this experience (3) I could→could I (4) where→that (5) if ever→if any (6) much more→the more
- 3 (1) so to speak (2) if any (3) if ever (4) whatsoever (5) in the world (6) by far (7) nor (8) Here (9) when (10) Neither
- 4 (1) Neither (2) Maria (3) Hardly (4) Only (5) do (6) on earth (7) however (8) the colder (9) by far (10) How is it that
- 1 (1) ▶ never가 앞에 나와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2) ▶ 보어인 so successful이 앞에 나와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3) ▶ only가 붙은 부사구가 문두에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4) ▶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much를 쓸 수 있다.  
(5) ▶ '도대체'라는 강조구문을 쓰는 경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is it that'을 쓴다.  
(6) ▶ 부정문의 강조 부사구로 in the least를 쓴다.
- 2 (1) 우리 집 근처에 문을 닫은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 장소의 부사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2) 이 경험은 너의 경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사기도 복돋아 줄 것이다.  
▶ not only라는 부정부사가 앞에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한다.  
(3) 영화의 끔찍한 장면에서 나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 부정부사인 hardly가 앞에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 (4) 독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이다.  
▶ 관계부사 **where**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올 수 없으므로 주어 가 강조된 **it ~ that** 강조구문을 알 수 있다.
- (5)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 수나 양을 나타내는 부정어 다음에 강조부사구로 **if any**를 쓴다.
- (6) 네가 더 일찍 올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
- 3** (1) 내 사촌은 말하자면 말썽꾼이다.  
▶ '말하자면, 소위'라는 의미의 부사구가 필요하다.
- (2)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 수나 양을 나타내는 부정어 다음에 강조부사구로 **if any**를 쓴다.
- (3) 그들은 서로를 본다고 해도 좀처럼 보지 못한다.  
▶ 빈도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와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구로 **if ever**를 쓴다.
- (4) 세계의 굶주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 부정어를 꾸미기 위한 '전혀'의 의미의 강조부사로는 '**at all**' 과 '**whatsoever**' 등이 있다.
- (5)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니?  
▶ 의문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로는 '**in the world**'와 '**on earth**' 등이 있다.
- (6) 우리 네트워크 체계는 단연 최고로 믿을 만한 것이다.  
▶ 최상급을 수식하는 강조부사는 '**by far**'이다.
- (7) 나는 여러 주 동안 **Kate**와 말하지 않았고, 그녀와 말하고 싶지도 않다.  
▶ 앞의 부정 문장을 받아 뒤에 다시 부정문을 말할 때 접속사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어로 **nor**가 있다.
- (8) 여기 너의 선생님이 오시는데 대단히 화가 나신 것처럼 보인다.  
▶ 뒤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므로 유도부사인 **there** 혹은 **here**를 쓴다.
- (9) 내가 샤워를 하자마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 **hardly** 혹은 **scarcely**는 **when** 혹은 **before**와 함께 쓰여 '~하자마자'의 의미를 나타낸다.
- (10) 너는 이 영화를 보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  
- 너도 그래.  
▶ 앞에 부정문이므로 **neither**를 쓰고, **be**동사가 쓰였으므로 **be**동사를 쓴다.
- 4** (1) 그녀는 내게 원한을 가진 적이 없다.  
- 나도 그래.  
▶ 부정문이므로 **neither**를 쓴다.
- (2) 저기 **Maria**가 학교에 또 늦어서 뛰어간다.  
▶ 도치구문이므로 대명사가 아닌 명사를 쓴다.
- (3) 그가 사기꾼이라고는 거의 상상도 못했다.  
▶ 도치구문이므로 부정부사를 쓴다.
- (4)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 뒤의 문장에서 **did**와 **I**가 도치되었으므로 도치를 유도하는 **only**를 쓴다.

- (5) 이번에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정말 믿는다.  
▶ 일반동사를 강조하는 것은 **do**이다.
- (6) 도대체 왜 너는 늙은이처럼 행동하고 있니?  
▶ 의문문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on earth**이다.
- (7) 그러나 **Janet**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한 문장 내에서 '그러나'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부사는 **however**이다.
- (8) 네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날씨는 더 춥다.  
▶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의 구문이다.
- (9) 그것은 내 인생에서 단연 가장 기억할 만한 순간이었다.  
▶ 최상급을 수식하는 부사구는 **by far**이다.
- (10)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은데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연봉을 인상받았지?  
▶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it ~ that**' 강조구문으로 쓸 때는 '**의문사 + is it that ~?**'으로 쓴다.

## Actual Test

p.120

**1** ② **2** ① **3** ⑤ **4** ③

**5** I didn't seek this promotion, nor did I ask for it.

**6** ② **7** ④ **8** Do come again next time **9** ③

**10** ④ **11** ⑤ **12** ① **13** ③ **14** ② **15** ③

- 1**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 **not until** 이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으므로 뒤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도치시킨다.
- 2** ▶ **Rarely**라는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을 때 주어와 동사는 도치된다.
- 3** **David**, 빨리 와. 여기 \_\_\_\_\_ 가 와.  
▶ 도치가 되는 경우는 주어가 명사인 경우이므로 대명사인 **she**는 쓸 수 없다.
- 4** ① **Julie**는 도대체 뭐가 문제니?  
② 내가 어젯밤에 깨트린 것은 **Jenny**의 유리컵이었다.  
③ 도대체 너의 카메라를 어디서 샀니?  
④ 그는 밤 낚시를 즐기지 않는다. - 우리 아버지도 그래.  
⑤ 나는 어디에서도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다.  
▶ ③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강조구문으로 바꾸면 '**의문사 + is it that ~?**'으로 쓴다.
- 5** 나는 이 승진을 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 앞에 **nor**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으므로 뒤에는 부정문으로 쓰지 않고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 6** A: 나는 내일 콘서트에 갈 거야.  
B: 나도 그럴 거야.

▶ 앞이 긍정문이고 조동사가 쓰였으므로 so와 조동사를 쓴다.

- 7 • 그녀는 자신의 사퇴에 대해 전혀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 힘이 전혀 없다.  
▶ 부정문 강조의 부사는 **whatsoever**이다.

- 8 방문해서 정말 재미있었다면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 **come**을 강조하는 동사가 필요하므로 **do**를 쓴다.

- 9 ① 교회의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다.  
② Jonathan이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③ Joe는 병 때문에 결석한다고 전화한 적이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④ 우리 아버지는 말하자면 천재라고 불렸었다.  
⑤ 일부 비정부 단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가난에서 구제하려고 노력한다.  
▶ **nor**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킨다.(→ **nor does he want to**)

- 10 서울은 한국에서 단연 가장 큰 도시이다.  
▶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구는 **by far**이다.

- 11 ① 너는 써야 한다면 내 노트북을 써도 좋다.  
② Pam은 급했지만, 우리는 급한 것이 없었다.  
③ 가능하면 그 쇼를 취소하고 싶다.  
④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⑤ 지구 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래로 당기는 것이 바로 중력이다.  
▶ ⑤ **it ~ that** 강조구문에서 **that**이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므로 생략하지 못한다.

### [12-15]

미국 이민의 역사는 미국을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로 만들었다. 이민의 첫 시기는 17세기에 여러 다른 유럽 지역에서 온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정착민들로 시작되었다. 1820년대가 지나서야 대규모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민의 홍수와 함께 공포도 함께 왔다. 사람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민자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민법을 더 엄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자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고 이민법은 규제가 조금 풀렸다. 오늘날 이민자들은 미국 인구의 12%를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 12 ▶ 뒤에 도치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부정어나 **only**가 와야 하고 그 중 문맥상 맞는 것은 **not until**이다.
- 13 ▶ 부사구를 강조하지 않고 정치법으로 쓰려면 주어와 동사가 앞에 오고 부사구는 뒤에 쓴다.
- 14 ▶ 일반동사의 강조 동사는 **do**이며 시제를 과거로 써야 한다.
- 15 ▶ 비교급을 수식하는 강조부사에는 '**much, even, still, far, a lot**' 등이 있고 **by far**는 최상급을 강조한다.